



# 雲門

불기 2554년  
여름호  
통권 제113호

雲門僧伽大學



불기 2554년 여름호 통권 제113호

# 雲門

## 목 차

호거산 운문사	2
죽림헌	3 無言善行 편집부
교수논단	4 매사에 진실하라 명성 스님
풍경소리	6 초기 불교의 이해 Ⅱ 호진 스님
차례법문	11 여인숙 편집부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12 간경 수행 도연 스님
이와 같이 들었다	14 이와 같이 나는 보았다 명법 스님
학인논단	19 자비경 편집부
특별기고	20 유식 삼성으로 깨달음 이해하기 Ⅰ 이진 스님
선배탐방	24 자비 명상 마가스님
이 한 권의 책	28 心 香 법진 스님
선사이야기	30 바보처럼 꾸준히 가라 도옹 스님
想	32 지금 당장 그대의 면목은 어떤 것인가 법진 스님
끝없는 여정	34 소박한 발원부터 큰 서원까지 서주 스님
답소	36 기와에 새긴 부처 희운 스님
수행의 두레박 하나	40 환계(還戒), 첫마음으로 돌아오는 길 이원규
둘	42 초심자의 향심 영조 스님
셋	44 내 마음의 밭 능현 스님
운문논평	46 나의 좌우명 반주 스님
운문소식	48 자연도 행복이 필요합니다 편집부
등불	50
	51 마음으로 얻어야 한다 편집부



書無  
行言

나의  
좌우명  
반주 스님

## 매사에 진실하라

명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수행과 일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새도 뒤를 흐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흔적 없이 말끔하게 뒷정리를 잘해놓고 나가야 뒷사람이 일하기가 수월하지요. 수행과 일이 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理 : 평등한 진리의 체])와 사([事 : 유위의 형상])가 둘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수행 따로 일 따로 이것은 차별이요, 분별입니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다만, 좋다 싫다 분별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라는 말이『신심명』에 보면 있습니다. 오직 분별심을 놓아버리고 매사에 진실하게 살 때 도에 한 걸음 다가서는 삶이 될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사무애([理事無碍 : 평등한 理法과 차별 있는 事法이 결합 없이 융합])를 설하고 있습니다. 이사불이([理事不二 : 理와 事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일도 공부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即事而眞’ 일에 즉 하여 진실하라. 이 말은 내 생활신조입니다. 일에 나아가 진실하라는 이 말은, 얼마나 매사에 진실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이사무애, 이사불이와 같은 뜻이지요.

수행과 일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일이면 큰일이라 하여 검약한 마음을 일으켜 퇴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또 작은 일은 작은 일이라 하여 하찮은 마음을 일으켜 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바로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은 가장 진실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나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바로 현재에 깨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로 미래로 헤매면서 한순간도 지금 여기에 깨어 있지 못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오롯이 몸과 마음이 한 대상을 향하여 일념이 되는 것이지요. 일념이 된다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이고, 최선의 행복한 일입니다. 매사에 진실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나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 초기 불교의 이해 Ⅱ

호진 스님 / 기림사

\*본 고(稿)는 운문승가대학 특강 자료입니다.

### 목 차

1. 초기 불교
2. 봉다의 생애
3. 경전의 성립
4. 봉다가 발견한 진리 : 연기법
5. 사성제
6. 오온 - 무아
7. 윤회
8. 업과 과보

### 3. 경전의 성립

봉다의 열반 후 승단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봉다가 평생 배울었던 가르침을 모아서 정리하는 일이었다. 봉다의 가르침이 잊히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지만 그것보다도 더 직접적인 동기가 있었다.

봉다가 열반에 들었을 때 제자들 가운데서 상

수(上首)였던 까샤빠는 여러 동료 비구들과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봉다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가던 도중 열반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함께 있던 많은 비구는 모두 봉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탄식했지만 수바드라(Subhadra)라는 비구는 그들과는 반대였다. 슬퍼하고 있는 동료 비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벗들이여,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우리는 저 대사문(大沙門, 봉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너희에게 허락한다’, ‘이것은 너희에게 마땅치 않다’ 하여 우리는 괴로움을 받았고 압박을 당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다.”

까샤빠는 이 비구의 말을 듣고 봉다가 존재하지 않는 승단의 기강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그는 봉다가 남긴 법(法)과 율(律)을 정리해서 이후 승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결집 이유로는 봉다가 열반에 들 때 그를 대신하여 승단을 이끌어 갈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봉다는 생전에도 그 자신이 승단의 책임자로서 승단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승단의 한 구성원 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사후(死後)에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를 생각할 수 없었다. 봉다가 열반에 들기 조금 전에 아난다가 후계자문제에 대해 말하자 봉다는 그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아난다야, 혹은 너희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스승의 말씀은 끝났다. 우리들의 스승은 안 계신다.’라고. 그러

나 아난다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설(說)하고 내가 가르친 법과 윤을 내가 죽은 다음 너희의 스승으로 삼아라.”

승단의 지도자들은 봉다의 열반 후 그를 대신해서 승단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봉다가 남긴 법과 윤이라는 것, 그래서 법과 윤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봉다가 존재하지 않는 승단을 유지하고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봉다의 장례가 끝나자 곧 까샤빠는 그곳에 모인 비구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을 결집(結集)할 것을 제안했다. “벗들이여, 우리는 마땅히 교법과 계율을 결집하여 비법(非法)이 일어나 정법(正法)이 쇠하고 비율(非律)이 일어나 정율(正律)이 망하며 비법을 설하는 자가 강하고 정법을 설하는 자가 약하고 비율을 설하는 자가 힘을 얻고 정율을 설하는 자가 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소.” 비구들은 까샤빠의 제안에 찬성하고 봉다의 가르침을 결집하는 일에 착수했다.

봉다는 그 당시 인도의 다른 종교가나 사상가들처럼 모든 가르침을 문자로 펴지 않고 ‘말’로써 했기 때문에 그가 남긴 가르침을 정리하는 것은 현대 종교가나 사상가들이 남긴 저술을 정리하는 것과는 달랐다. 제자들이 평소에 봉다에게 들었던 가르침을 기억해 내어서 함께 검토한 뒤 그것이 틀림없는 봉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목소리를 같이하여 암송하면서 그들의 기억 속에 정리했다. 그래서 이 성전 편찬을 합송(合誦, samgiti)이라고 한 것이다.

까샤빠는 결집을 위해 학문과 덕이 높은 500 명의 장로를 선발했다. 뽑힌 장로들은 봉다가 열반에 든 후 맞이하게 된 첫 안거(安居) 때 라자그라하(Rājagrīha, 王舍城)의 바이바라산 중턱의

칠엽굴(七葉窟)에 모였다. 까샤빠가 결집의 총 책임자가 되어 이 모임을 주관했고, 경전 결집의 책임자로는 아난다가, 그리고 계율 결집의 책임자로는 우빨리(Upali)가 선출되었다.

아난다는 시자로서 가장 오랫동안 봉다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봉다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우빨리는 까벨라바스투의 이발사 출신이었다. 봉다가 계를 줄 때마다 수계하는 사람의 머리를 깎아 주면서 봉다가 설하던 계율을 항상 들었기 때문에 계율에는 승단 내에서 제일인자로 꼽혔다.

아난다와 우빨리가 봉다의 가르침을 기억해 내어 설명하면 결집에 참석했던 비구들이 그것을 암송해서 기억 속에 정리했다. 최초의 경전과 윤장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 결집에서 성립된 경전과 윤장은 봉다가 45년간 가르친 모든 것은 아니었다. 결집에 참석했던 장로들이 기억해 낼 수 있었던 것 가운데서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만을 정리했던 것이다. 또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출가한 비구들이었으므로 경과 윤의 내용도 그들 위주로 결집하였다. 봉다가 재가 신도들에게 했던 많은 가르침은 이 결집에서 거의 반영될 수 없었다. 이것이 첫 결집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결집한 경전과 윤장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거의 없다.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경전과 윤장이 첫 결집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결집이 있었던 후에도 여러 번의 다른 결집이 있었다. 그리고 경전이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첫 결집으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기원전 1세기부터였다. 그러나 최초로 이루어진 문자경전 역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경전 가운데 이 문자결집 이후에 생긴 사상이나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의 경전과 율장이 최초의 문자결집 때 만들어진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경전과 유풍은 봄다의 가르침과 다른 것인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최초로 결집한 내용과 현재의 경전과 유풍 사이에 다소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 핵심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전은 오랜 세월에 걸쳐 변천하면서 현재의 형태로 되었겠지만, 최초의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보태지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봄다가 발견한 진리 : 연기법

고대마 싯다르타는 법(法: Dharma)을 깨달음으로써 ‘봄다’가 되었다. 그러므로 봄다의 정각 내용은 ‘법’이다.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인가.

초기경전 가운데서 법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곳은 중아함(제30경)이다. 부처님의 제일 제자였던 사리뿌뜨라가 여러 비구에게 “여러분, 세존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연기(緣起)를 보면 법(法)을 보고 법을 보면 곧 연기를 본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봄다가 깨달은 진리, 즉 법(Dharma)은 연기(緣起)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기란 무엇인가. 먼저 그 의미부터 알아보면, 이것은 pratitya-samutpada를 번역한 말이다. 이 말은 “pratitya”, 즉 “…때문에”와 “samutpada”, 즉 “생기는 것”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의 역경가들은 이것을 “연기”라고 번역했던 것이다. 결국 “연기”라는 말

은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연(緣)”이라는 경전(상우따니까야, 12의 20)에서 봄다는 이것을 “비구들이여 연기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의성(相依性)이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이해하였다.”라고 “상의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경전의 여러 곳에서는 연기의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잡아함 335경; 중아함 86경 外).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此有故 彼有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此起故 彼起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此無故 彼無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此滅故 彼滅

이것으로 모든 존재가 상관관계(相關關係)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뒤집어서 그 상관관계가 깨질 때 모든 존재는 그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같은 방법으로 설명했다.

여기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와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라는 말로써 “존재함”[有]과 “존재하지 않음”[無]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존재가 공간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다음 구절인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와 “이것이 사라지므로 저것이 사라진다.”에서는 “생김”[起, 發生]과 “사라짐”[滅, 消滅]의 개념으로 존재의 시간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모든 존재는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존재하고 소멸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연기의 원리를 잡아함(제288경)의 노경(蘆經)이라는 경에서는 갈대[蘆]의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다. “비유하면 3개의 갈대가 빈 땅[空地]에 서려고 할 때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 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만일 두 개를 제거해 버리면 한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한다. 서로서로 의지[相依]해야 서게 된다(상우따니까야, 12의 67 참조).”

연기의 원리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우연히 생겨나거나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존재는 여러 가지 원인이나 조건 때문에 생겨나고 존재하게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원인이나 조건이 사라지거나 변하면 존재도 사라지거나 변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의하면 절대자나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집과 수레의 비유).

연기법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이 법칙은 존재와 더불어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봄다와 같은 어느 한 사람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사실과는 관계없이 존재한다. 단지 봄다와 같은 존재에 의해서 이 법칙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응용, 실천된 것뿐이다.

연기법은 봄다에 의해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을 뿐 봄다 자신이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다. 역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것을 봄다 자신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한 제자가 이 문제에 대해 “세존이시여, 이론바 연기법은 세존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라고 묻자, 봄다는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내[如來]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진리의 세계[法界]에 항상 머물러 있다. 나는 이 법을 깨닫고, 옳게 깨달음을 이룬 뒤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잡아함 299경; 상우따니까야 12의 20). 즉 봄다는 연기법의 발견자이지 발명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연기법은 불교의 모든 교리의 밑바탕이 된다. 4성제, 무아, 무상, 공, 12인연법 등의 교리들은 모두 이 연기의 원리를 그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연기의 원리에 의해 무아이고 무상이고 공일 수 있고 역시 12인연법과 4성제 교리도 가능한 것이다.

연기법을 불교의 다른 모든 이론의 밑바탕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본이론 또는 순수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다른 이론들은 이 연기법을 응용해서 만든 응용이론 또는 실천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기법은 ‘원료’이고 다른 교리들은 연기법이라는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기법이 봄다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봄다가 풀고자 했던 문제는 고(苦, duhkha)였다. 고(苦)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것이 봄다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였다(大正藏 32권 p. 698). 봄다가 한 경에서 자신은 고(苦)라는 문제가 없었다면 출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사 출가했다 해도 도(道)를 이루지 못했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잡아함 965경).

봄다는 자신이 발견한 연기법으로서 고(苦)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연기법에 의하면 고의 고유성 또는 실재성이 인정될 수 없다. 고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을 벌주기 위해 어떤 신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그 원인을 제거해 버리면 사라진다(장아합 1경 ; 잡아합 303경).

붓다는 이 원리에 의하여 고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없앰으로써 고에서 벗어나 고가 없는 상태, 즉 열반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고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쳤던 것이다.

연기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밝혀 두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2연기법’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라고 하는 ‘연기법’과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행 때문에 식이 있고...”라는 ‘12연기법’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두 가지 연기법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12지(支) 연기법처럼 지수(支數)를 가진 연기법은 아함경에서 직접 확인한 것만 해도, 5지 연기에서 12지 연기까지 8종류나 된다. 13지 연기는 없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지수를 가진 연기법은 처음에 5지나 6지처럼 단순했던 것이 시간과 더불어 발전해서 12지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2지 연기법은 싯다르타가 보드가야의 보리수 밑에서 어느 날 새벽 한순간에 깨달은 그 연기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둘째, 12지 연기법은 무생물뿐 아니라 식물이나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 특히 하등동물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바위나 나무의 ‘발생과 소멸’을 ‘무명 때문에 행(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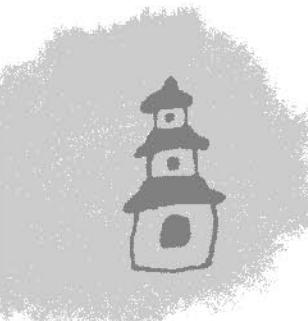
있고… 6입(六入: 눈, 귀 등, 6개의 감각 기관) 때 문에 촉이 있고…’라는 12지 연기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 역시 6개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렁이와 같은 하등동물에게도 12지 연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12지 연기법은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도 ‘고(苦)의 발생과 소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교리일 뿐이다. 12지 연기법으로써 과거·현재·미래 등 3세(世)의 인과를 설명하는 삼체양중인과설(三世兩重因果說)도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교리이다. 게다가 이 인과설은 싯다르타의 열반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설일체유부라는 부파에서 만든 교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12지 연기법은 모든 존재 [諸法]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기법은 다른 교리들, 즉 무상, 무아, 공(空), 4성제와 같은 중심 교리들의 바탕이 될 수 없다. 이를 교리는 12지 연기법을 근거로 해서 설명될 수 없다. 그래서 12지 연기법은 다른 교리의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원리가 아니라 다른 교리처럼 응용교리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것과는 달리,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라는 ‘연기법’으로써는 생물과 무생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존재의 발생과 소멸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불교 교리의 사상적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❶

〈다음 호에 계속〉

## 여인숙

편집부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기구들을 몽땅 내다 버리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서 보낸  
안내지들이니까 ❷

## 간경 수행

도연 / 대교과

안녕하십니까? 대교반 도연입니다.

죽비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학인 스님들의 독경(讀經)소리.

졸린 눈을 비벼가며 독송하는 새벽 입선시간, 치문반 시절에는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견책(譴責) 중에 가장 싫었던 것이 1시간 동안 모두가 입을 맞춰서 읽어야 하는 독송 견책 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칼날 같은 입승스님의 눈빛을 피해 가며 쏟아지는 졸음과 난자(難字)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있는 힘을 다해 독송을 마치면, 이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쾌재를 부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상황입니다.

강원에서는 조사어록과 경전을 읽고 외우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참된 수행자가 되려는 과정을 지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힘들고 지쳐 온갖 번뇌 망상이 치성해도 경전의 말씀을 의지해 수행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여러 수행방법 중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경을 보는 간경(看經)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간경이란, 말 그대로 '경전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한자의 '看'은 '손을 이마에 대고 자세히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 수행이란 '문자로 기록된 경전을 자세히 보아서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간경은 세 종류로 나누어서 합니다.

첫째, 소리 내어서 하는 소리 간경.

둘째, 눈으로 읽으면서 하는 눈 간경.

셋째, 마음으로 내용과 뜻[진리]을 사유하는 마음 간경이 있습니다.

소리 내어서 하는 '소리 간경'은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힘이 있으며, 몸과 마음을 균형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눈으로 읽으면서 하는 '눈 간경'은 직관의 힘을 길러 줍니다. 마음으로 법을 사유하는 '마음 간경'은 모든 의혹을 제거하여 정견을 세우게 하는 마음의 힘을 길러 줍니다.

첫 번째, 소리 간경은 먼저 경전·논서·율서, 조사어록, 또는 계송을 소리 내어 읽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귀에 소리가 들림을 알아차립니다. 읽고 들으면서 내용이 파악됩니다. 내용이 파악되면 읽는 것은 자연 잊어버리면서 뜻이 드러나게 되고 뜻이 파악되면 내용은 자연 잊혀지고 그 뜻에 들어가게 됩니다. 뜻에 들어가면 뜻은 번

뇌 망상을 소멸시키므로 그 뜻마저 절로 잊어버리게 되어 주객이 없는 마음상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만일 뜻에 들어가지 못하면 닦이 알을 품듯이 그 뜻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소리 간경 수행의 요령입니다.

두 번째, 눈 간경도 경전·논서·율서, 그리고 조사어록, 계송을 소리 내어 읽습니다. 본인의 귀에 소리가 들림을 알아차립니다. 읽으면서 내용이 파악됩니다. 내용이 파악되면 읽는 것은 자연 잊어버리면서 뜻이 드러납니다. 뜻이 파악되면 소리를 점점 낮춥니다.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읽습니다. 혀의 뿌리가 움직이지 않게 읽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습니다. 마음으로 읽으면 마음의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 파장을 아주 작게 합니다. 파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경전·논서·율서, 그리고 조사어록, 또는 계송의 뜻으로 들어갑니다. 뜻에 들어가면 뜻은 번뇌 망상을 소멸시키므로 뜻마저 절로 잊어버리게 되어 본연의 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뜻에 들어가지 못하면 경전·논서·율서, 그리고 조사어록, 또는 계송을 소리 내어 읽는 데서 다시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마음으로 내용과 뜻[진리]을 사유하는 간경은 먼저 계송을 외웁니다. 능숙하게 외운 다음 조용히 정좌하여 앉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나 내쉴 때에 이 계송을 외우는 것입니다. 마치 말을 타고 가듯이 계송이 호흡을 타고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의 리듬을 타면서 능숙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삼매). 마음이 고요해진 다음에는 계송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는 내용의 뜻을 알기 시작합니다. 내용의 뜻[진리]를 알기 시작하면 계송의 그 뜻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니 여러 갈래로 일어나는 잡념이 점차 정리되고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의식은 하나 되는 상태로 깨어납니다.

소리 내어서 하는 소리 간경, 눈으로 읽으면서 하는 눈 간경, 마음으로 내용과 뜻을 사유하는 마음 간경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모든 일에 여유가 생기며 자신감이 커집니다. 또 「공덕경」에는 간경 수행을 하면 잠을 쫓을 수 있고, 마장에 빠지지 않으며, 음성이 세상에 퍼지고, 지옥·아귀·축생의 고통을 쉬게 하며, 또 밖의 소리가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며, 생각이 흘어지지 않고, 삼매를 얻을 수 있으며, 중생을 제도하고 상호가 원만해지며, 정신에 밝은 빛을 얻고 진리를 체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중 스님! 마음으로 내용과 뜻을 사유하는 간경은 경전 위의 글자만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백지까지도 사유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와 올려하느라 많이 지치고 힘든 계절이지만, 위의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간경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동적(動的)인 영역이 많은 운문사 도량에서 소리를 크게 내어 읽기도 하고, 마음으로 사유하는 법을 연습해 본다면 여유와 정적(靜的)인 평화로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옛 성현의 계송을 끝으로 저의 차례법문을 마칩니다.

我有一經卷 不因紙墨成  
展開無一字 常放大光明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펼쳐 열어보면 한 줄지도 없건 만은  
항상 큰 광명을 놓음이로다.

대중 스님, 정진 여일 하십시오. ☺

## 이와 같이 나는 보았다

-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을 참배하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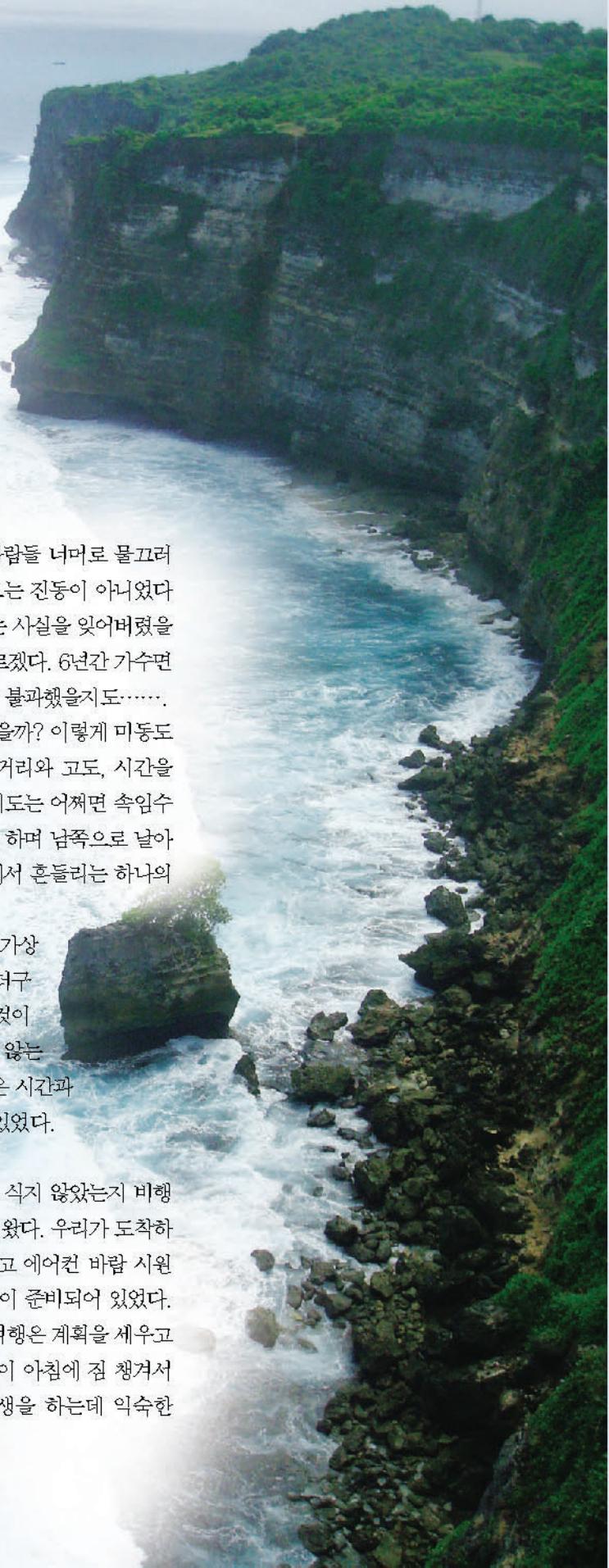
명법 / 운문승가대학 강사

실내는 밝은 조명 아래 대낮처럼 환했다. 사람들 너머로 물끄러미 바라본 창밖은 깊은 침침했다. 가끔씩 온몸을 흔드는 진동이 아니었다면 내가 기대고 있는 공간이 움직이는 비행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어쩌면 아바타의 주인공도 그랬는지 모르겠다. 6년간 가수면 상태의 우주여행이 그냥 가끔씩 흔들리는 요동에 불과했을지도…….

무엇이 진짜일까? 비행기는 정말로 날고 있을까? 이렇게 미동도 하지 않는데? 눈을 돌리니 대형 스크린에 비행거리와 고도, 시간을 표시하는 지도가 비춰지고 있었다. 아니야, 저 지도는 어쩌면 속임수 일지도 몰라. 진실은 이 비행기가 포물선 운동을 하며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망망한 우주 공간에서 흔들리는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한지도 몰라.

그렇다. 시간과 공간은 관념 속에 존재하는 가상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변화뿐이니까. 더구나 그 변화조차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느껴지는 것이니까 이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빌리로 향하는 밤 비행기 속에서 나의 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좌표를 잊고 그렇게 현재 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적도의 태양으로 달아오른 대지는 한밤에도 식지 않았는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후덥지근한 공기에 숨이 막혀왔다. 우리가 도착하기만 기다린 현지 가이드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에어컨 바람 시원한 관광버스가 호텔까지 실어다 주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패키지여행은 그래서 좋은가보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계획을 세우고 교통편과 숙소를 예약하느라 부산을 떨 필요 없이 아침에 짐 챙겨서 나온 것이 전부였다. 도착하는 순간부터 생고생을 하는데 익숙한



나에게 공항에서 숙소까지, 숙소에서 관광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이번 여행은 호사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편리를 위해 치러야 한 대가는 만만치 않았다. 나에게 여행은 무엇보다 사람 사는 모습을 보는 건데 사람들과 나를 길리놓는 관광버스 유리창이 때로 답답하게 느껴졌다.

첫날, 우리는 울루와뚜 절벽사원과 브사끼 사원을 찾았다. 이 사원들은 불교사원이 아니라 힌두사원이다. 이번 여행은 비구니승가대학 강사님들이 보로부두르 대탑을 참배하러 간 여행이지만, 우리가 선택한 여행코스가 빌리를 통해 족자카르타로 가는 3박5일의 여정이기 때문에 빌리 힌두사원도 참관하게 되었다. 빌리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주된 종교가 이슬람인 것과 달리 빌리 사람들은 대부분 힌두교를 믿는다. 그런데 빌리의 힌두교는 인도의 힌두교와 달리 토착신앙과 불교적인 요소가 융합된 독자적인 것이어서 특별히 '빌리 힌두교'라고 부른다.

그날 아침 호텔을 나설 때 로비에서 한 직원이 주렁주렁 리본으로 장식된 대나무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내심 궁금했지만 그냥 지나쳤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아까 호텔직원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대나무 장대가 계속 나타났다. 도대체 뭘까? 가이드에게 물었다. '벤조르'라고 부르는데, 내일모레 '와이삭'에 신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 사원 앞이나 대문 앞에 세워둔단다. 그 말에 '와이삭'이 힌두 명절을 가리키는 줄 알았다. 잠시 후 다음날 보로부두르 대탑에서도 와이삭 기념행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그것이 '베삭', 즉 음력 사월 보름날 동남아시아에서 경축하는 부처님 탄생일인 줄 알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공식 명절이기도 한 이날, 빌리 사람들은 힌두사원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슬람에 밀려 빌리로 쫓겨온 힌두교가 원주민의 정령신앙을 흡수했듯이 이제 이웃종교 교주의 탄생일까지 자신들의 명절로 삼는다. 빌리에서는 모든 것이 힌두가 된다. 섬 곳곳에 있는 동네 사원으로부터 집안에 모



신 사당에 이르기까지 신의 땅이 아닌 곳이 없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어김없이 각양각색의 벤조르가 세워져 있었다.

절벽사원은 멀지 않았다. 입구에서 허리띠를 둘러야 입장할 수 있다고 해서 노란색 띠 하나를 집어 허리에 둘렀지만 정작 사원 내부는 힌두교도가 아니라고 들어갈 수 없단다. 좀 맥이 빠졌지만 인도양 바다는 그것을 보충해주고도 남았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푸른 바다는 덤벙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가이드가 영화 빠삐용의 탈출 장면을 이곳에서 촬영했다고 귀띔해주었다. 갇혀 있지 않은 나도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무기수로 갇혀 있었던 빠삐용에게 어떤 느낌이었을까? 감독의 탁월한 선택에 감탄했다.

그날 오후에는 빌리 힌두교 최고의 성소인 브사끼 사원을 방문했다. 빌리 섬에서 가장 높은 아궁산 기슭에 있는 이 사원을 향해 버스는 오르막길을 두어 시간 달렸다. 1963년에도 분화했다는 이 화산은 열대의 태양과 더불어 이 섬에 생명력과 파괴의 힘을 기득 채워주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빌리 힌두교의 최고신인 상 향 위디(Sang Hyang Widi)가 현현하는 세 가지 모습, 브라흐만, 비슈누, 시바는 태양과 생성, 그리고 파괴를 상징한다. 탑을 칼로 반 자른 듯한 좌우대칭의 사원 정문에서도 생성과 파괴의 이원성을 우주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넉넉함과 당당함을 느낄 수 있었다.



놀랍게도 사원 안에는 빈 의자만 놓여 있을 뿐, 신상이 보이지 않았다. 신들은 하늘에 살면서 사람들 이 공물을 바칠 때 지상에 온다고 한다. 신들이 지상에 왔을 때 앉기 위해 그들은 산을 만들었고 사람들 은 신이 오셔서 머물 수 있도록 사원에 빈 의자를 준비해둔다. 그래서 벤조르를 사원 앞에 세우는 거로구나. 솟대처럼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신들과 교감하기 위하여.

신들의 섬에 신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 역설 적이었다. 그래서 빌리 사람들이 날마다 공양을 올리 면서 신들이 강림해주길 기도하는 걸까? 그렇지 않 으면 신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사느라고 인간의 일에 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인간의 일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저 악애보다 얼마나 신다운 태도 인가!

돌아오는 도중 차창 밖에 보이는 무성한 열대 숲 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원시문화를 연구했던 마가렛 미드를 생각했다. 빌리 사람들은 왜 그토록 많은 신 을 필요로 할까? 생명이 자라지 않는 사막에선 고독 한 심판자인 단 하나의 신으로 충분하겠지만 열대의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이 땅은 하나의 신이 감당하기에는 무리일까?

마지막 날 방문했던 파라롯 사원에서 우리는 힌 두의례를 직접 보는 행운을 얻었다. 사원은 우리나라 간월도처럼 육지와 연결된 작은 섬이었다. 마침 썰물

때여서 사람들이 줄지어 사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역 시 우리는 입장 불가. 다행히 해안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섬을 돌아 나온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드는 것으로 보아, 사원에 제물을 올린 다음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좀 더 넓은 장소로 나온 것 같았다. 어린아이와 노인도 더러 섞여 있었는데, 그들은 신에게 기도드리느라 곱게 차려입은 옷이 물에 젖는 것도, 이마에 흙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이었다. 사람들의 이마에 불인 쌀알, 제물을 이고 일렬로 걸어가는 여인네들,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들, 그곳에서는 바다와 산, 일상의 모든 것이 신에게 드리는 제물 같았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길에 줄지어 선 민속품 가게들 사이에 생뚱맞게 들어선 풀로 매장을 보면서 왜 그 가게가 거기 있는지, 언젠가 이곳에 도 자본주의의 물신이 힌두의 신들을 몰아낼지 걱정 이 되었다.

둘째 날, 새벽부터 강행군이다. 족자카르타로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이른 아침에만 뜨 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다섯 시에 아침공양도 못하고 호텔을 출발했다.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서양여자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눈인사를 했더니 금방 말을 건네 왔다. 오늘 저녁 보로부두르 대탑에 서 열리는 와이삭 전야제에 참가하기 위해 마이애미 에서 왔단다. 얼마나 오래 불교수행을 했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십여 년 했다고 한다. 서양인 불자를 여럿 만나보았지만 마이애미 사람은 처음이었다. 휴양지 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이곳까지 올 정도로 열성적인 불교신도가 있는 줄이야! 새삼 세계로 뻗어 가는 불교의 힘을 느꼈다. 그리고 보니 비행기는 보로부두르 대탑으로 가는 사람들로 만원 이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푸른 눈의 불자들 사이에 섞여 우리는 천 년 전 샤일렌드라 왕조가 만들어낸, 세계 칠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보로부두르 대탑을 향하여 빌리를 떠났다.

드디어 대탑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거대한 산처럼 대탑은 그 규모와 역사에 있어 인간의 상상력의 극을 보여준다. 금강계 만다라를 형상화한 대탑은 욕계를 상징하는 기단과 색계를 상징하는 사각형의 회랑으로 구성된 4개의 층, 그리고 무색계를 상징하는 3개 층의 원형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정상에 거대한 스튜파 모양의 중앙탑이 세워져 있다. 욕계와 색계를 상징하는 기단과 사각단은 회랑벽과 난순을 따라 1,460개의 부조가 조각되어 있다. 회랑 주변 동서 남북 사면에 있는 불간에는 금강계 만다라의 오방불 원리에 따라 동방은 죽지인을 한 아축불, 서방은 선정인을 한 아미타불, 남쪽은 여원인을 한 보생여래, 북방은 시무여인을 한 불공취여래가 각각 92좌씩 모셔져 있으며 제4 회랑 주변의 설법인을 한 비로자나불 64좌까지 모두 432개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여기에 무색계를 상징하는 원형단에 세워진 72개의 불탑 속의 전법륜인을 한 석가모니불까지, 그야말로 화장장엄세계를 이루고 있다.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무려 10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는데, 정확한 연대는 없지만 불교 왕국 사일렌드라가 자바 섬을 지배했던 775년부터 860년까지 건축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탑 공사가 얼마나 난공사였는지는 숨겨진 옛 기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원래 힌두사원으로 계획되었지만 제2 회랑을 쌓아올릴 무렵 발생한 붕괴사고 때문에 공사가 중단 되었고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대승불교 불탑 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기단에 부조도 이때 새겼으나

붕괴 위험 때문에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새 기단을 쌓고 대탑을 건축하게 된다. 숨겨진 기단은 1900년 초 네덜란드인이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 현재 대탑 동남쪽에 일부 드러나 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기단부터 시작해 서 제1 회랑의 주벽을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부조를 감상했다. 숨겨진 부조는 「분별선악보옹경』의 이야기로 인과옹보의 교훈을 전하고 있었고 첫 번째 층 주벽은 「방광장엄경』의 내용인 부처님의 생애가 조각되어 있었다. 서툰 우리말이었지만 가이드는 한 장면 한 장면 열심히 설명해주었다.

너무 많아 다 보지 못하고 중요한 장면만 보다가 문득 한 장면 앞에 서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고행을 통해 정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행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는 장면이다. 보살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만 기운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달리 마야부인이 출연한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이때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유죽을 드신 것은 마야부인의 설득 때문이라고 한다. 대자를 넣고 7일 만에 사망했지만, 도솔천에서 보살을 들키고 있었던 마야부인은 아들이 고행으로 쓰러져 가는 것을 보고 직접 나선다. 하늘에서 내려온 마야





부인이 이렇게 아들을 태이른다. “얘야, 그렇게 허약한 몸으로 어떻게 정자를 이를 수 있겠니? 수자타가 끓여주는 우유죽을 먹고 힘내렴.” 그렇게 해서 보살이 수자타가 공양한 우유죽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다음 장면에 이어진다. 설명을 들은 스님들이 모두 웃었다. 참 인간적인 해석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 기와 다르지만, 아무튼 이야기대로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성의 승리임이 틀림없다.

『화엄경』 '입법계품'을 묘사한 제2 회랑부터 제4 회랑까지는 시간이 없어 건너뛰었다. 아쉬웠다. 그 조각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다시 와야겠다. 사각단을 지나 원형단에 올라서자 시야가 확 트였다. 이제 무대는 좁고 막힌 회랑이 아니라 무한히 펼쳐진 푸른 하늘이다. 형상의 세계(색계)로부터 형상이 없는 세계(무색계)로의 전환이 이보다 더 드라마틱할 수는 없다. 비록 돌로 조각되어 있지만 중앙 스투파와 그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석가모니불과 종 모양의 스투파들은 마치 “여기서부터 깨달은 자들의 세계”라고 말하는 듯 당당하게 하늘을 향해 솟아있었다. 그리고 하늘은, 공간의 무한성과 의식의 무한성을 표상하는 그 하늘은 천 년 세월 동안 밀없이 폐허가 된 대탑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방을 둘며 기도를 드린 다음 일행을 따라 탑에서 내려왔다. 내려오다가 그래도 아쉬워서 제4 회랑을 혼자 들었다. 화장세계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있었다. 빌리가 신들의 섬이라면 이곳 보로부두르는 그야말로 불보살의 나라가 아닌가?

돌아오는 길에서 대탑 그림을 그리는 어린이들을 보았다. 와이삭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 행사인 모양이다. 여자아이들이 모두 허접을 쓴 걸로 보아 분명히 이슬람교도였다. 그들에게 대탑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국이라면 어떨까? 한국에서 기독교인 자녀들에게 석굴암 부처님상을 그리게 한다면 이처럼 평화롭고 진지하게 그릴 수 있을까? 우리의 선입견에는 이슬람이 더 호전적인 걸로 박혀 있지만 실제는 그와 다른가 보다. 적어도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들은 조상의 찬란한 역사를 배우며 관용의 정신도 함께 배우고 있지 않은가!

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실크로드 여행사 이사님에게 특별히 부탁했다. 마지막 날은 오전만이라도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호텔에서 쉬자고. 새벽부터 자정까지 강행군을 한 터라 일행들도 모두 좋아했다. 여행지에 가면 돌아다니기 바빠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쉬웠는데, 이번엔 그 소원을 풀고 야 말리라. 그리하여 마지막 날, 눈을 뜨자마자 바닷가로 나갔다. 바다는 가없이 팔 벌리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백사장을 걸으며 나는 동심으로 돌아갔다. 아침 공양 후에는 룸메이트와 함께 비치파라솔 아래 누워 한가롭게 책을 읽는 여유까지.

바람이 불어온다. <부처님의 생애>를 펼친다. 곧 개학하면 가르쳐야 할 책이지만 오늘은 다른 생각 말고 그냥 읽자. 아득히 파도소리 멀어지고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법을 깨달아 마음이 기쁜 자는 홀로 있어도 행복하단다. 이 세상 어떤 생명에도 적의를 품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자는 행복하단다. 모든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라는 교만한 마음을 던져버릴 때, 그 누구보다 행복하단다.”

이와 같이 나는 보았다. ●

## 자비경(慈悲經, Mettasutta)

편집부

- 하나  
완전한 평정 상태를 연뜻 맛보고서 더욱더 향상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말이 점잖으며, 온유하고, 거만하지 않아야 한다.
- 둘  
만족할 줄 알아서 남들이 공경하기 쉬워야 하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감각기관은 고요하고, 사려 깊을지니, 세속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 셋  
또한, 현자의 나무랄을 살만한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한다.  
오직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두가 안온하게 잘 지내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 넷  
살아 있는 생명이라면 어떤 것이나 예의 없이, 악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길거나 크거나, 아니면 중간이거나 짧거나, 미세하거나 또는 거대하거나,
- 다섯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또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이미 난 것이나, 장차 태어날 것이나,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 여섯  
서로가 서로를, 어디에 있든 속이거나 헐뜯는 일이 없게 하라.  
누구라도 다른 이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마라. 원한에 서든 증오에 서든.
- 일곱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보호하듯,  
모든 존재를 향한 한량없는 연민의 마음을 자기 것으로 키워나가라.
- 여덟  
온 세상, 그 높은 곳, 그 깊은 곳, 그 넓은 곳까지 모두를 감싸 안는 큰마음을 키워라.  
미움도 적의도 넘어선 잔잔한 그 사랑을.
- 아홉  
서 있거나 걷거나 앉거나 누웠거나 깨어 있는 한, 이 자비의 마음 챙김을 굳게 지녀야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한 경지’가 바로 그것이다.
- 열  
어떤 견해에도 매이지 않고, 계행과 통찰을 갖춘 사람,  
모든 감각적 욕망을 이겨냈기에, 그는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으리라. ●

## 유식 삼성으로 깨달음 이해하기 I

- 연기(緣起)와 현상계 존재에 대한 고찰

이진 / 대교과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유식 사상의 삼성
  - 가. 원성실성(圓成實性)
  - 나. 의타기성(依他起性)
  - 다. 번계소집성(遍計所執性)
3. 연기로서의 삼성
4. 현상계 존재로서의 삼성
5. 깨달음을 삼성으로 정의
6. 맷음말
7. 참고문헌

### 1. 들어가는 말

붓다는 자신의 가르침(법(法))을 옛목에 비유하였다. 법이란 다 다르면 버려야 하는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옛목 치장에만 정신이 팔려 물을 건널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유식(唯識) 삼성(三性)이 그런 이론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유식 삼성은 식(識)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바른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견(正見)을 제시하는 수행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유식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론」

과 「해심밀경」의 삼성설을 살펴보면 삼성은 공(空) · 무아(無我) · 중도(中道) · 연기(緣起)를 함축하고 있는 법(法)의 보고(寶庫)라 볼 수 있다.

본고(稿)에서는 이론으로는 아는 듯해도 어렵게 느껴지는 유식 삼성을 실제 수행 현장에 적용하여 깨달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를 돋기 위해 승의제(勝義諦)를 세속제(世俗諦)와 이어주는 의타기성의 연기적 역할을 검토하고, 또 현상 세계의 존재를 삼성을 배대하여 무자성(無自性)임을 증명하여 공(空) · 무아(無我) · 중도(中道) · 연기(緣起)를 정견(正見)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지지부진한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실제 수행이 전문인 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유식 사상의 삼성

붓다는 승의제(勝義諦)<sup>1)</sup>와 세속제(世俗諦)<sup>2)</sup> 2제(諦)를 설한다. 사실 세속제가 없으면 승의제는 있을 수 없으며 승의제가 없다면 열반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의지하여 나타날 뿐 자성(自性)이 없으므로 둘 다 공(空)한 것이 된다. 하지만 범부(凡夫)들이 늘 그러하듯 두 가지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깨달음의 세계와 미혹의 세계가 별개의 세계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이를 유식에서는 존재의 상태를 3가지 성질로 나타내어 2제(諦)를 보다 중도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자칫 삼성을 유식의 이론이라 하여 식(識)의 입장에서만 보려 하는데 사실 삼성은 식(識)에만 국한된 이론이 아니다. 초기 유식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론」과 「해심밀경」에서 설명하는 삼성(三性)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번계소집성 - 명칭에 의해 세워진 것 [名言所立]

#### 의타기성 - 온갖 여건에 의해 생긴 것 [衆緣所立]

### 원성실성 - 있는 그대로의 참된 실재 [真如]

위의 설명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유식 초기에는 삼성을 식(識)에 대한 관련 없이 다만 언어와 연기 그리고 참된 실체가 각각 별개라고 설명한다. 식에 관한 언급은 「설대승론」과 「성유식론」과 같은 후대 논서에서 나타난다.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것은 사성제와 연기법이다. 이 세상이 고(苦)임을 알고, 도(道)를 닦아 적멸(寂滅)에 들어가려면 이 현상세계가 여러 가지 연(緣)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그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무상(無常)한 것인 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 장에서는 연기적인 입장에서 삼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 가. 원성실성(圓成實性)

초기 유식설에서는 '원성실성'을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고 정의한다.

원성실성이라는 용어는 현장(玄奘)의 번역이고, 진제(眞諦)는 진실성(眞實性)이라고 번역했다. 팔리어로는 parinispanna-svabhava이며 '이미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나다, 너다'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기 전의 첨다운

실제 그대로인 것이다.

물론 원성실성을 '법의 참된 성질인 자성(自性)이 없어 항상 하지 않기(무상(無常))에 공(空)하다'라고 하면 무지(無知)한 범부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름' 이전의 자리, 즉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본래 상태를 원성 실성으로 본다면 조금은 이해하기가 편하다.

『회엄경』 「현수보살품」에는 10가지 삼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 해인삼매(海印三昧)의 상태가 바로 원성실성이 아닐까 한다.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고 파도가 조용하면 만물의 모습이 그대로 바다의 수면에 투영되는 것과 같이 무명(無明)과 번뇌(煩惱)의 풍파(風波)가 소멸하였을 때 청정한 마음의 바다에는 과거 · 현재 · 미래 삼세(三世)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투영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솔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을 예로 들어보면, '솔뚜껑을 솔뚜껑으로 보는 것'이 원성실성이다.

수행할 때, 법을 임시 가합(假合)된 것으로 해체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달이 물에 비치듯 자기 생각을 보태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상을 객관화시키는 연습을 해보라. 언젠가는 참된 원성실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나. 의타기성(依他起性)

1) 1. 승의제의 의미를 「현구론(顯句論)」에서는 "의미(義)이기도 하고, 수승하기(勝) 때문에 승의(勝義)이다. 그것이 진리(諦)이기 때문에 승의제이다."라고 한다. '수승한 것(勝)'은 가장 수승한 성자의 근본지(根本智)인 평등지(平等智)를 의미한다. '의미(義)'는 이 성자가 가진 지혜가 작용하는 대상(所行境)의 의미를 가리킨다. '제(諦)'는 허망하지 않고 속임이 없는 법의 본성을 의미한다.

2) 『해심밀경』〈제2 승의제상품〉에서는 승의제의 다섯 가지 특징을 넷으로 나누어서 설하고 있다. 첫째, 승의제는 언어를 떠나 있으며 모든 법은 방편으로 시설된 언어일 뿐이다. 둘째, 승의제는 모든 사고와 판단을 초월하고 있다. 여기서 승의제가 폰 자내증(自內證)이라고 말하고 있다. 셋째, 승의제는 행상(行相)과 하나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넷째, 승의제는 일체에 두루 가득하며 일미의 것이다.

3) 세속제는 범어로 samvritti satya, 티벳어로 kun rdzob bden pa라고 한다. samvritti와 kun rdzob은 '완전히 장애하는 것',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본질을 장애하여 옮바른 의미를 보지 못하게 하는 실집(實執)이 세속이다. 이러한 실집(實執)의 축면에서 진리이기 때문에 '제(諦, satya, bden pa)'라고 한다. 중생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함으로써 제법이 현현하는 방식과 본질적인 방식이 일치하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세속이다.

『현구론』에서 월청은 세속을 '실상을 장애하는 것, 서로 의존하는 것, 세간의 언설' 셋으로 설명한다. 그 중에서 '실상을 장애하는 것'이 세속제에서 세속이 본래 의미하는 것이다.

의타기성을 진제 삼장(眞諦 三藏)은 의타성(依他性)이라고 했다. 팔리어로는 paratantra-svabhava이며,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의타기성이라고 번역할 때 기(起)에 상당하는 말이 원어에는 없지만, 생멸의 세계에 있는 것(유위법(有爲法))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오히려 뜻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삼성에서 의타기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승의제와 세속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타기성이다. 일체법(一切法)을 무자성(無自性)이라고 하면 그 무자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의타기성이다.

『유마경』 「문질품」에 유마는 평등성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그것은 자아의 평등성을 바탕으로 열반의 평등성에까지 이르는 일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도 열반도 모두가 공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공한 이유는 … 개념에 의해 틀지어져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둘 다 실체로서 완성된 것과는 거리가 멎니다.

여기서 자아는 변계소집에 해당하며 열반은 원성실성에 해당한다. 변계소집을 일으키는 의타기성

이 바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언어나 이름, 허망 분별<sup>3)</sup>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결국, 의타기성이 청정하면 열반이라는 의미가 된다. 의타기에는 염오(染汚)의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정의 부분도 있다.<sup>4)</sup> 염오의 정도가 심할수록 변계소집이 나타나고 의타기가 청정할수록 ‘원성실성(圓成實性)’에 가까워지는 것이다.<sup>5)</sup> 비유하자면 유리 온실과 같아서 유리가 깨끗할수록 바깥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과 같은데 유리를 깨어버리면 풍경을 직접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유리가 깨끗하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유리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이 그만큼 미세하여 알아차리기 힘든 것을 말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솔뚜껑 보고 놀란다.’에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의타기성이 되는 것이다. 변계소집(假說)의 근거가 되는 사물·사건의 세계가 의타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식(識)으로 규정한다면 제8식<sup>6)</sup>이라고 할 수 있다.

수행에 적용할 때는 주관적인 생각을 의타기라고 보고 이름에 묶여 승의제(勝義體)를 보지 못함을 인정하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이 세계가 명칭에 의해 가설(假設)된 것인 줄 알게 되어 공

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성유식론」에서는

원성실성[진여(眞如)]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의타기성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분별지(無分別智)가 진여를 보고서 아비로소 얻게 되는 후득지(後得智)가 의타기성의 활동인 허깨비와 같은 것임을 본다.

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여를 보지 못했다고는 하여도 해인삼매(海印三昧)의 상태가 원성실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무명의 근본이 되는 탐진치 삼독(三毒)을 조절하면서 청정 의타기로 나아가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 다.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팔리어로는 parikalpita-svabhava이며 ‘보편적인 분별에 의해 분별 된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견분(見分)과 상분(相分) 또는 주체와 객체로 양분된 현상세계를 의미한다. 의타기성인 제8식 위에 의식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식이 이름을 외쳐 원인으로 하여 가설된 것이 변계소집이다. 즉, 현상 세계의 이름을 매개로 하여 실체인 양 잘못 집착하는 것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솔뚜껑 보고 놀란다.’ 가운데 ‘솔뚜껑을 보고 놀라는 것’이 변계소집성이다. 자라를 보고 놀란 경험이 없었다면 솔뚜껑을 보고도 놀랄 일이 없다.

변계소집은 허망하게 대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조금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셀 수 없이 많은 인연(因緣)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조금은 청정한 의타기로 변계소집이 나타날 수 있다. 국도로 청정한 상태의 의타기를 매개로 하여 나타난 변계소집은 원성실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7) 중아含經 30, 象跡喻經 : (若見緣起 便見法 若見法 便見緣起)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8) 짐아含經 335 : 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 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

### 3. 연기로서의 삼성

연기설은 봇다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봇다가 발견한 보편타당한 객관적 진리이다. 따라서 이것을 법(法, Dhamma)이라 한다.<sup>7)</sup>

연기(緣起)는 팔리어로 pratitya-samutpada라고 하며 ‘어떤 것을 연(緣)하여 일어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연기의 일반적인 정의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sup>8)</sup>는 것이다. ‘어떤 것을 연(緣)하여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기대어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주불변(常住不變)할 수도 없다. 결국, 연기설이란 존재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다.

일체는 셀 수도 없고 모두 인식할 수도 없는 원인과 조건으로 성립되어 있다. 사실 인연(因緣)이 모이는 데는 시간이나 공간적인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찰나에 생겼다가 찰나에 사라진다. 원성실성이 허망 분별이라는 의타기를 거쳐 변계소집을 나타내지만 결국 의타기가 청정하다면 변계소집 그대로가 원성실성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성실성이 없다면 의타기도 없으며 의타기가 없다면 변계소집도 없다.

수행 중에 염오된 의타기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이름에 끌려 다니지 않는 것이다. 삼성을 연기로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3) 허망 분별과 3성의 관계는 『변중변론(辯中邊論)』, 『설대승론』 등에 설해져 있다.

4) 勝呂信靜, “유식설의 체계성립”, 平川彰 외 저, 이만 역, 『유식 사상』, 경서원, 141쪽 참조.

勝呂는 ‘의타기를 염분과 정분의 두 축면으로 이해한 기원에 대해 勝呂信靜은 『해심밀경』에서는 의타기성이 단지 잡염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승장엄경론』이나 『변중변론』에서도 의타기의 청정에 대해서는 설하지 않았다. 『유가론』의 『설결핵분』에서 의타기성에 잡염의 타기와 청정의 타기 2종으로 구별하기는 하는데, 단지 구별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반면, 『설대승론』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그는 ‘염정이분 의타기성설은 『설대승론』의 독창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

5) 『성유식론』, 제8권, 대정장31, 46중: “此即於彼依他起上 常遠離前遍計所執 二空所顯眞如爲性.” 의타기와 더불어 염오의 타기가 변계소집이고 청정의 타기가 원성실성을 뜻하므로 이로써 식의 삼성(三性)이 설명된다. 『성유식론』, 제9권, 대정장31, 51상: “染謂虛妄遍計所執. 淨謂眞實圓成實性” 잡염법이란 허망 분별의 원성실성을 말하고, 청정법은 진실한 원성실성을 말한다.

『설대승론』, 제2권, 「응지승상」, 대정장31, 121상: “의타성 가운데서 분별성은 염오의 부분이 되고, 진실성은 청정의 부분이 된다. 의타성은 염오와 청정의 부분이 된다.”

6) 제8식 alaya vijnana는 여래장 계통에서는 아리아식(阿梨耶識)이라 하고 유식 계통에서는 아뢰아식(阿賴耶識)이라 한다. 여래장을 주제로 하는 『대승기신론』에서는 ‘진명화합식(眞妄和合識)’으로 유식에서는 ‘중자식(種子識)’으로 규정한다. 여기서는 유식 사상의 아뢰아식을 말한다.

## 자비 명상

마가 스님 / 나누는 기쁨 공동체 대표

자비로운 마음은 적대적이던 사람들마저 친구로 돌아서게 하며 나와 남이 함께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한다. 또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면을 보게 하고 상처를 주지 않으며 남의 행복을 기뻐하게 한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자비 명상은 평화로움 속에 긍정적 감정을 일으켜 남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부정적 성품들에서 벗어나게 한다. 공격성, 파괴성, 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공격적이지 않고 파괴적이지 않은 마음을 길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도 정화한다.

### 1. 자비의 세 가지 측면

첫 번째, 자비는 우리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도량이 넓고 당당한 나무처럼 자라도록 해준다. 두 번째, 명상으로서의 자비는 정신적 개화를 가져오며 그 결과 우리의 삶 전체가 민인에게 기쁨의 원천이 된다. 세 번째, 정신적 발전 과정이 결실을 보게 한

다. 일체를 포용하는 정신적 사랑을 하게 되어 사회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그 자신은 저 높은 초월적 깨달음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통찰력을 매장하고 있는 광산과 같다. 이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은 오직 자비의 수행에 의해서만 충분히 캐낼 수 있다. 자비는 휴면 상태의 공덕을 원숙하게 만드는 '성숙시키는 힘'이다.

### 2. 자비의 심리학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 ▷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야 하므로 억압하기를 피한다.
- ▷ 사람에게 공격적이지 않아야 하므로 공격적이기를 피한다.
- ▷ 사람을 학대하지 않아야 하므로 학대행위를 피한다.
- ▷ 어떤 생명도 해치지 말아야 하므로 파괴적인 행위를 피한다.

- ▷ 사람을 과롭하지 말아야 하므로 과롭하기를 피한다.
- ▷ "사람들이 화목하고 서로 적대하지 않기를!"하고 바라는 마음을 보낸다.
- ▷ "모든 사람이 행복하며 불행하지 않기를!"하고 바라는 마음을 보낸다.
- ▷ "모든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번민하지 않기를!"하고 바라는 마음을 보낸다.

이러한 8가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보편적 사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성질의 사랑을 속에 품는 것이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마음'의 문제이다. 또 이러한 마음은 모든 악의 있는 생각에서 '자유로워' 지므로 이들 사랑과 마음과 자유가 합친 것을 두고 '마음의 자유로 이끄는 보편적 사랑'이라 정의한다.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자비는 여러 면으로 긍정적 덕목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그 외 대칭되는 부정적 성품들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 억압하지 않는 길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에만 비로소 남을 억압하려는 성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격적이고 남을 학대하고 파괴적이며 괴롭히는 부정적 성품을 벗어나려면 그 반대되는 자질들, 즉 공격적이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파괴적이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 자세를 행동, 말, 생각을 통해 실천하는 길뿐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반듯하게 세운 다음,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자비관법'이라는 특수 명상기법을 닦아 마음을 더욱더 계발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자비관이 강력하게 일으켜내는 승화된 사랑의 마음 또한 끝 모르게 자라나서 우리의 식 그 자체를 무한하고 보편적이게 만들어 준다. 모든 사람이 화목하고 적대적이지 않도록, 행복하고 불행하지 않도록, 안녕을 누리고 고난을 겪지 않기를 기원하는 그 마음가짐은 이미 승고하고 광대무변한 경지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자유 또한 완벽함에 이르렀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마음을 자유로

이끄는 보편적 사랑'이란 표현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자비와 반대되는 다섯 가지 성향 중 '억압'은 남을 압박하거나 손실을 입히려 드는 욕망이며, '공격적' 이란 남을 다치게 하거나 상처를 주려는 성향이고, '학대'는 고통을 주려는 가학적 성향과 동의 어로 남을 아프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파괴'는 끌장내거나 해치워버리려는 것으로 극단주의자와 파괴자들의 특성이고, '괴롭힘'은 부담을 지우거나 난처하게 만들거나 근심과 긴장을 안겨주는 것을 말한다. 이들 성향은 반감과 악의에 뿌리박고 있어서 행동양식으로서나 심리상태 혹은 정신적인 자세 모든 면에서 자비와는 대조를 이룬다. 부정적인 성향을 일일이 그와 상반되는 긍정적인 도리로 대체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삶에 접근하는 자세가 매우 발전,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남을 억압하지 않고 공격·파괴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지금처럼 인간관계가 고도의 긴장과 비참함을 빚고 있는 세상에서는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사랑에 넘치는 행동지표라 할 수 있다.

자비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노여움, 원한, 공격성 같은 오염물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속 오염물까지도 정화한다. 자비는 우정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적대적이던 사람들마저 친구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좋은 면만을 보려 하고 남들이 잘되는 쪽을 더 좋아하고, 비공격적이 되어 어떤 상처도 주지 않으며 또 적극적으로 복리를 증진하게 해줄 때에만 자비가 용해제 구실을 한다. 사랑은 감정 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감정인 악의를 막아준다. 그러기에 '보편적 사랑이 이룩해 낸 마음의 자유. 그것은 바로 악의에서의 완전한 해방이다.'

우리가 자비를 닦을 때 특히 경계해야 할 감정들이 있다. 자비와 유사하기 때문에 자칫 자비를 망치기 쉬운 감정들과 또 자비와는 전연 비슷한 점이라곤 없어서 자비를 크게 방해하는 감정들이 그것이

다. 탐욕, 색욕, 관능, 텁텁은 그 성향이 자비심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자비의 탈을 쓰고 수행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진정한 자비심을 이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악의와 분노, 증오는 자비심과는 닮지 않은 감정들이어서 쉽사리 분간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반드시 한층 높은 힘인 사랑을 쏟아내어 이것을 정복해 버려야 한다.

### 3. 자비관 수행방법

어떤 곳이든지 혼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는다. 눈을 감고 '자비'를 몇 번 발음하면서 마음에 그 뜻을 떠올린다. 증오, 원한, 악의, 성냄, 자만과 반대이며 남들의 행복과 안녕을 증진하는 선의, 이해, 친절 등과 같은 깊은 감정인 사랑을 … . 그런 다음 행복감으로 빛나는 자기 자신의 환한 얼굴을 눈앞에 그려 보라. 거울을 볼 때마다 행복한 기분을 지어보고 명상할 동안에도 줄곧 그런 기분에 잠겨 보라. 행복감에 잠긴 사람은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품을 수가 없다. 행복한 기분에 잠긴 자기 모습을 눈앞에 그런 다음, 이제

"내가 마음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  
"내가 화냄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  
"내가 욕심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  
"내가 번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자신에게 가득 보내라. (내용은 긍정적이면 좋다.) 이처럼 긍정적인 사랑의 힘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면 마침내 물이 가득 찬 그릇과 같이 될 것이며 이제 그 내용물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 모든 사랑 중에서 자신에 대한 사랑이 밑바탕이다. 자신을 사랑하

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에 대한 미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고, 아이들의 행동과 말도 자신의 것대로 흐리게 본다. 아이들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명상을 지도해 주는 스승의 모습을 눈앞에 떠올린다. 살아계실 경우다. 행복한 기분의 스승을 그려보며 위에서와 똑같은 마음을 투사한다.

"스승이 마음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  
"스승이 화냄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  
"스승이 욕심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  
"스승이 번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  
"스승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

이때 눈앞에 떠올린 모습은 설명해야 하며 마음의 방사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영상화를 서두르거나 기원을 형식적 또는 기계적으로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비를 행한다는 것, 다시 말해 자비로운 의지의 힘을 적극적으로 투사하는 것은 단순히 자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과는 전연 별개의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비관의 대상은 항상 살아 있는 존재여야 하며 그 대상이 살아 있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만다. 그다음은 자신의 가족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씩 눈앞에 그려나가면서 자비의 빛을 기득히 비추어 그들을 감싼다. 자비는 자기 집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자기 가족에게 자비를 펼칠 때는 배우자와 같이 너무 정이 깊은 사람은 제일 뒤로 돌리도록 신경 써야 한다. 부부간의 친밀함에는 자비를 때 묻게 하는 속된 애정이란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침된 정신적 사랑은 누구에 대해서나 똑같아야 한다. 다음은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들 차례인데 이웃들, 동료 등등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일일이

사랑의 마음을 방사한 후에 싫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보낸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적의가 없다. 그도 나에게 적대감이 없기를 … . 그가 행복해지기를 … ."하고 마음속으로 반복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대상을 눈앞에 떠올려 가는 동안 좋고 싶고 애착하고 즐오하는 데 기인한 장벽들을 무너뜨리게 된다. 해방되지 않은 마음은 자기중심주의와 탐욕, 증오, 미혹, 질투와 비천함의 감옥에 갇혀 있다. 사람이 마음을 더럽히고 옹졸하게 정신적 요소들에 속박당하고 있는 한 그 마음은 내내 자물쇠가 채워진 채 편협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자비는 이 명예들을 깨뜨림으로써 마음을 해방하며 일단 해방되면 마음은 자연히 무한 무량하게 자라난다.

이와 같이 전면적 기원을 남들에게 발하여 그들이 적의와 고통, 그리고 번민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고 있을 때 우리 자신만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찬 경지에 그치지 않고 남들에게도 실제로 강력한 마음의 진동이 가서 그들의 행복에 이바지하고 적대감을 냉각시키고 고통과 번민을 덜어주게 된다. 그러므로 우주적 차원의 보편적 사랑은 한편으로는 안녕과 행복을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적의, 증오 그리고 분노와 같은 정신적 오염을 때문에 생긴 정신적, 육체적 고(苦)를 제거한다.

### 4. 자비관을 닦으면

마음을 해탈로 이끄는 보편적 사랑을 열심히 닦

고, 발전시키고, 꾸준하게 다시 챙기고, 삶의 기반으로 삼으며 완전히 정착시키고 잘 다지고 완성하면 다음과 같은 11가지의 복을 기대할 수 있다. 편안히 잠자고, 즐겁게 깨어나며, 악몽을 꾸지 않는다. 사람들의 아낌을 받고, 사람 아닌 존재들의 아낌을 받는다. 천신들이 보호해 주며 불이나 독, 무기의 해를 입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쉽게定을 이룰 수 있으며 표정은 평온하고 임종 시에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완전한 마음의 평안을 위해 애쓰는 사람은,

- ▷ 말이 부드러우며 은유하고 거만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 어떤 행동도 삼가기를 … .  
모두가 탈 없이 지내기를 … .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 ▷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으로 볼 수 없건, 또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태어났건 태어나려 하고 있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 ▷ 자기의 도반이 어디에 있든 간에 속이거나 헐뜯는  
일을 삼가기를 … .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마라.  
원한에서든, 증오에서든 … .
- ▷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듯 일체중생을 향한 일체 포옹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지켜내기를!
- ▷ 전 우주를, 높은 곳, 깊은 곳, 넓은 곳 끝까지 모두를  
감싸는 자비의 마음을 키워라. 미움도 적의도  
넘어선 잔잔한 그 자비를 … .
- ▷ 서거나 걷거나 앉거나 누웠거나 깨어 있는 한  
이 자비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전심전력하라.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한 경지"가 바로 그것이다. ☺

☞ cafe.daum.net/jurira 참고.

마가스님 : 만일사 주지,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나누는 기쁨 공동체 대표.

## 心 香

- 제18회 동문 성원 스님을 찾아서 -

법진 / 사교과



누군가와 차를 마실 때  
그 차의 맛과 향은 함께 차  
를 마시는 사람에 따라 달라  
진다고 한다. 이번 선배탐방에  
서 나는 아주 그윽한 향의 맛좋  
은 차를 마시게 되었다. 혀끝의  
질감이 아닌 가슴 깊이 스며드는 편  
안함으로 오래도록 그 여운을 남겨주신  
성원 스님! 스님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입  
가에 살포시 미소가 지어진다. 그건 아마도 그분의  
'心香' 때문일 것이다. 잠깐의 만남에서 느낀 스님  
의 따스함에서 마음에도 향기가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해 본다.

경기도 여주 이천에 있는 영원사. 이름만큼이나  
천년고찰답게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탄성을 자  
아낸다. 입구의 커다란 연못 가운데 서 계신 관세음  
보살님께서 가장 먼저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신다.  
처음 와 본 곳임에도 아주 오래도록 머물렀던 것처  
럼 편안했다. 영원사는 엄마 품 같은 따스한 산세에  
푹 안겨 있었다.

처음 뵙는 순간, 아름다  
운 도량만큼이나 나이를 가늠  
할 수 없는 맑은 스님의 모습  
에 무척이나 놀랐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지닌 스님이  
셨기에 조용하고 묵묵히 살아오신 그동  
안의 발자취가 더욱 궁금해졌다. 수행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도량과 은사와 도반이  
라고 했는데, 먼저 그렇게 산세 좋은 천년고찰과 함  
께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 여쭈어 보았다.

"우리 스님이 처음 이곳에 온 것이 1958년도예  
요. 그땐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자갈밭뿐이었죠. 온  
종일 풀을 매고 떡을 것이 없어서 도토리를 주워 삶아  
우려낸 물에 소금을 타서 먹곤 했어요. 하루는 어  
떤 보살님이 정월에 떡과 쌀 한 말을 가져오셨는데,  
호랑이가 와서는 '야! 너희 떡 했느냐? 했으면 영원  
사에 스님들이 계시는데 거기 갔다 드려라.' 하셨대  
요. 그때만 해도 호랑이가 있어서 나무를 쌓아놓으

면 그곳에 와서 자고 가곤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여기 주불인 약사부처님을 모실 때의 일인데, 그땐  
차가 없을 때라서 산을 넘고 넘어 부처님을 모셔 와  
야 했죠. 돌부처님이라 너무 무거워 서로 미주 메고  
와야 했는데, 길이 멀어 중간에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글쎄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돌부처님이 없  
어진 거예요. '흔이 나겠구나!' 걱정하며 절에 돌아  
와 보니, 부처님이 마당에 떡 하나 앉아 계시지 뭐예  
요. 은사 스님께서 부처님이 앉아 계신 곳이 명당이  
니 거기에 그냥 집을 지으라 하셔서 그렇게 했죠. 그  
리고 불사를 위해 천일기도에 들어가서는 산신기도  
를 하려 온 보살님 덕분에 쉽게 불사를 이루게 됐어  
요."

청룡사 법회 문중에 동진 출가해서 오랜 세월을  
영원사와 함께 하시며 13년째 주지 소임을 맡고 계  
신 성원 스님. 천막으로 덮여 있던 허름한 법당을 당  
신의 원력으로 모든 불사를 이루면서도 그저 "부처  
님이 시키는 대로 살 뿐이죠."라며 겸손히 말씀하시  
는 스님. 오랜 세월 침묵과 기도로 일관된 삶을 살아  
오신 그분의 '心香'이, 묵향처럼 난향처럼 그윽하게  
나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그렇다면 그런 영원사와 인연을 맺어주신  
온사 스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 스님은 이북에서 오셨는데, 굉장히 강직  
하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잠에서 깨면 항상 다라니  
를 외우고 계셨죠. 풀이 보이지도 않는 이른 새벽에  
발에 나가면 다시 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울  
때까지 풀을 매다 돌아와야 했죠. 기도는 앉아서 하  
면 복 감한다고, 일하면서 다니면서 하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강하고 엄하셨어  
도 불쌍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엄청 챙기셨어  
요. 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부 나눠주셨지요. 돌아  
가실 때엔 '내가 혼이 있다면 너가 중노릇 잘하도록  
도와주마.'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어려울 때면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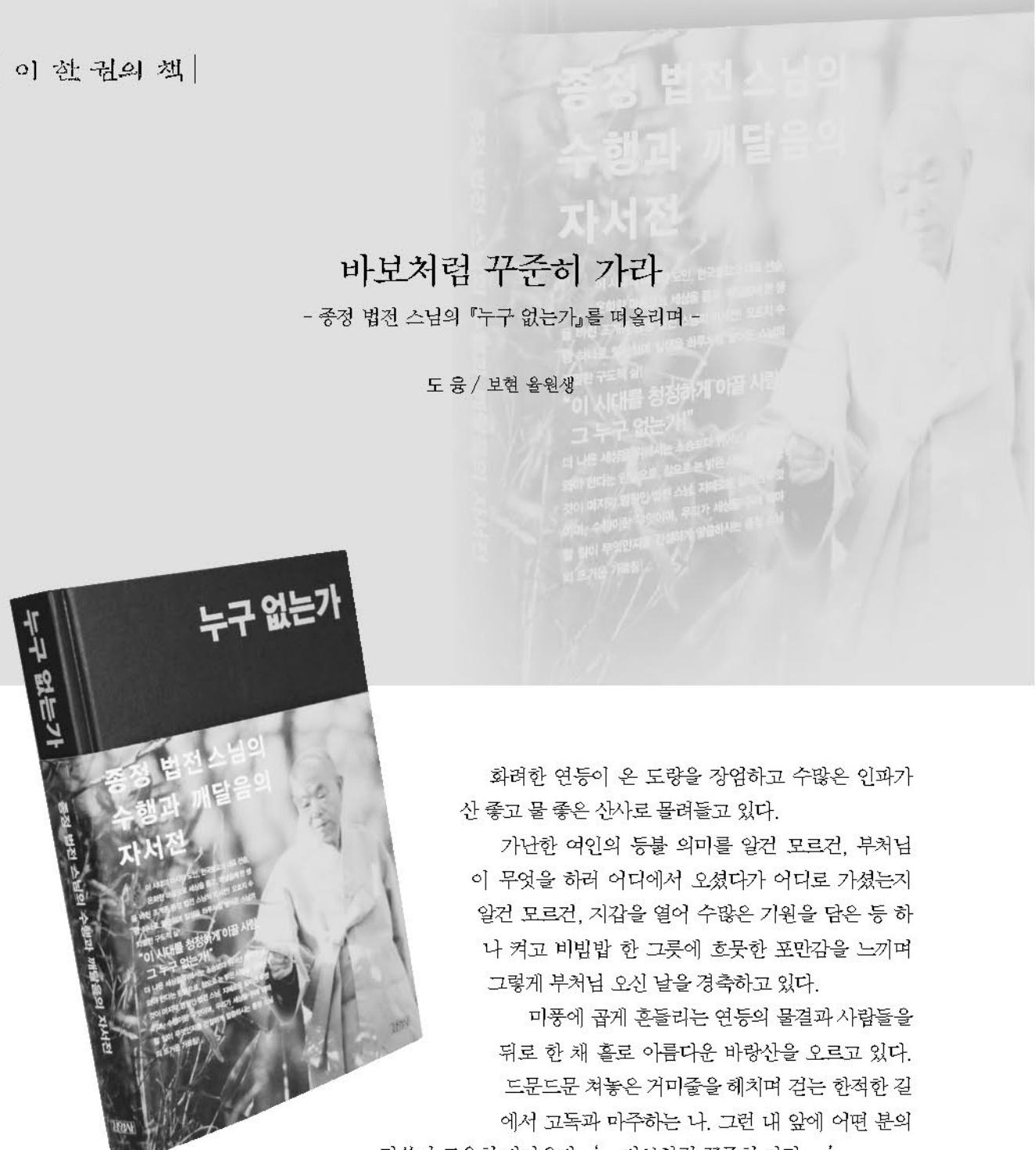
님의 그 말씀이 힘이 되어주곤 해요." 온사 스님을  
거울삼아 살아오셨다는 성원 스님의 올곧은 모습 뒤  
엔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스승님이 계셨나 보다.

그리고 도반... "수행의 반은 도반이 해준다는  
말이 맞아요. 번민과 좌절감으로 힘이 들 때면 도반  
들이 힘이 되어주거든요. 그리고 항상 신심을 내며  
살아야 해요." 라며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  
진 상황에 묵묵히 그저 바쁘게 사셨다는 스님, 부처  
님 뜻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스님  
의 겸허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절로 고개가 숙여진  
다.

### 고요한 평화.

잔잔한 시냇물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성원  
스님과의 만남은 그러했다. 스님의 '心香'을 살며시  
가슴에 담아본다. 나도 또한 그런 수행자가 되어보  
리라 다짐하면서.....





## 바보처럼 꾸준히 가라

- 종정 법전 스님의 『누구 없는가』를 떠올리며 -

도 융 / 보현 을원생

화려한 연등이 온 도량을 장엄하고 수많은 인파가 산 좋고 물 좋은 산사로 몰려들고 있다.

가난한 여인의 등불 의미를 알건 모르건, 부처님이 무엇을 하러 어디에서 오셨다가 어디로 가셨는지 알건 모르건, 지갑을 열어 수많은 기원을 담은 등 하나 켜고 비빔밥 한 그릇에 흐뭇한 포만감을 느끼며 그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고 있다.

미풍에 곱게 훈들리는 연등의 물결과 사람들을 뒤로 한 채 홀로 아름다운 바랑산을 오르고 있다. 드문드문 쳐놓은 거미줄을 헤치며 걷는 한적한 길에서 고독과 마주하는 나. 그런 내 앞에 어떤 분의 말씀이 조용히 다가온다. ‘…바보처럼 꾸준히 가라…’

얼마 전에 인연 있는 분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지인들의 죽음을 더러 접하긴 했어도 우리가 이 세상 처음 올 때의 모습에서 염을 하고 입관하기까지의 절차를 그렇게 상세히 접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영안실에 영혼이 텅 빈 접데기만 남겨놓은 모습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법문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았다.

생과 사가 이렇게 무한 반복되고 있을 텐데 난 지금 무얼 하는 걸까?

생사의 경계선에 늘 머물러 있는 우리는, 눈앞에서 죽음을 목격하는 순간에는 무상을 절감하다가도 돌아서면 어찌 그리 쉽게 망각하고 분주한 현실 속에 젖어드는지…….

급류 같은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 탈속을 꿈꾸며 출가한 우리에게도 참 실상을 깨닫고자 하는 본분사보다 끊임없이 세상 흐름을 따라가라고 하는 느낌, 이렇게 등 떠밀리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 결국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였음을 자각한다.

천만 가지 눈꽃송이가 화롯불에 스러지듯 번다한 사념들을 일시에 무색하게 만드는 책이 있다. 종정 법전 스님의 수행과 깨달음의 자서전 『누구 없는가』이다.

출판물이 범람하고 말뿐인 언어들이 국성을 부리는 요즘에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권하고 싶은 이 책은, 철저한 수행으로 일관하신 법전 스님께서 당신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실현의 목표를 일깨워주신다. 출가, 수행, 선농일치의 길, 그리고 회향의 순서로 구슬 된 책 속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육바리밀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기본원칙에 충실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다.

먹물 옷 입은 수행자에게 삶은 곧 가르침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다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기약 없이 이어지는 수행의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나태함과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인간적 욕구 앞에서, 우리는 점차 다른 방향을 향해 제각각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듦다.

요즈음 선지식의 부재니 간화선의 침체기니 하는 등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곤 한다. 하지만, 어쩌하랴! 그저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계신 것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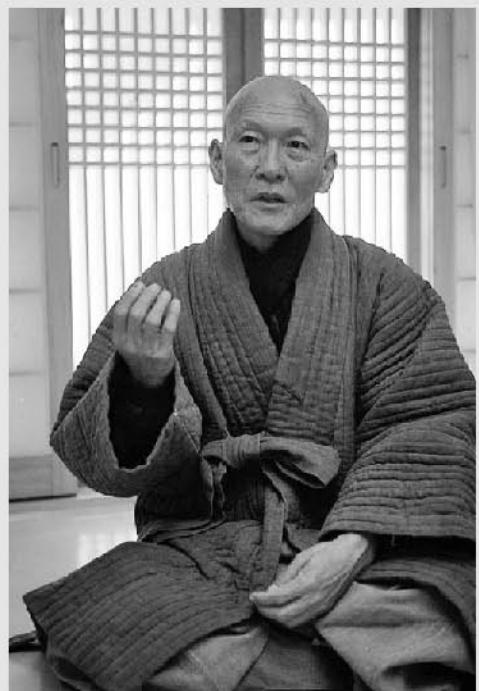
아직도 낯선 도시 4차선 오거리에서 우왕좌왕하는 기분이 든다면 내 안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선지식의 법문에 귀를 기울여 보자.

“행복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사람이 걸지 않을 뿐이다. 행복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있으며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행이라는 길을 꾸준히 걸어보라. 오래 하다 보면 틀림없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 반드시 깨칠 수 있으며 깨치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절집에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만이 공부할 수 있다. 일시적인 호기심 가지고는 안 된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천 년간다고. 한번 결심한 것을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가는 사람이 해낸다. 특별한 방법이 따로 없다. 재주만으로는 안 된다. 바보처럼 꾸준히 가라.”

## 지금 당장 그대의 면목은 어떤 것인가

- 무소유의 법정 스님 -

법진 / 사집과



눈이 시리도록 청명한 계절, 여름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다. 싱그러운 나뭇잎들이 잠시 제 각각의 색깔을 내뿜는가 싶더니 이내 초록으로 同色이 되었다. 매 순간 왔다가는 자연의 섭리는 이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다. 미련도 없고 흔적도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

인간의 한 생은 길고도 짧은 것인데, 나는 과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제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던 중, 우리에게 친숙한 법어로 많은 가르침을 전하신 법정 스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 길을 제시해 주시는 스님의 말씀은 간결하고도 명쾌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 안에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득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를 함께 지니고 있는 신비로운 세계다. 훌륭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의 밀바닥에서는 고독한 존재다. 그 고독과 신비로운 세계가 하나가 되도록 거듭거듭 안으로 살피다. 무엇이든지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책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마라. 성인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이론은 공허한 것이다. 그것은 내게 진정한 삶이 될 수 없다. 남한테서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겪은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차린 것이 아니다. 남이 겪어 말해놓은 것을 내가 아는 체할 뿐이다. 진정한 삶이란 내가 몸소 체험한 것. 이것만이 참으로 내 것이 될 수 있고 나를 형성한다.

- 법정 스님의 “제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中 -

글과 법문을 통해 세상살이의 번뇌를 호소하는 중생들을 위로해 주신 법정 스님.

무소유와 버리고 떠나기를 끊임없이 실천하며 청빈한 삶을 사셨던 법정 스님은 1932년 10월 8일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 앞에서 고민하다가 1956년 당대의 고승인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여러 선원에서 수선 안거(修禪

安居)하였고, 불교계의 현실 참여가 전혀 없다시피 했던 1970년대에 함석헌옹 등과 함께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과 유신철폐운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인혁당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후 반체제운동의 의미와 출가수행자로서의 자세를 고민하다가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짓고 홀로 살기 시작했고, 순수 시민운동단체 ‘맑고 향기롭게’를 만들어 마음과 삶을 맑히는 운동을 펼치며 수행생활을 했다. 그리고 김영한 여사에게 시주받아 길상사를 창건하게 된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자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불일암을 떠나 강원도 화전민이 살던 산골 오두막에서 혼자 지냈다. 해인사 선원에서 좌선을 익힐 당시 법정 스님은 강원의 불교 경전을 대하면서 한국 불교 현실에 갈등과 회의를 느끼게 된다.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전통과 타성에 젖어 지극히 관념적이고 형식적이며 맹목적인 이런 수도생활에 선뜻 용해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법정 스님에게 귀가 번쩍 뜨이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생긴다. 당시 선원의 조실 스님인 금봉 선사와 도반 스님이 문답하는 것을 곁에서 듣게 된 것이다.

“저는 본래면목 화두를 하는데 의문이 가지 않아 공부가 잘 안됩니다.” 이 말을 들은 선사는 즉석에서 다그쳤다. “본래면목은 그만두고 지금 당장 그대 면목은 어떤 것인가?”

그날 이후, 법정 스님은 자기의 참모습을 찾으라는 뜻을 많이 전하였다. “장부가 어찌 여래가 가신 길을 뒤따를 것인가.”라 하시며 심지어 자신의 글들을 말빛으로 여겨 당신이 입적한 후에는 모든 출판물을 출간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당부하셨다. 말과 형상에 매달려 수많은 집착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많은 고승이 후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흔적에 빠져 바른길을 찾지 못할까 경계하신 것처럼 법정 스님의 유언이야말로 무소유의 진정한 수행승, 참된 선구자의 표본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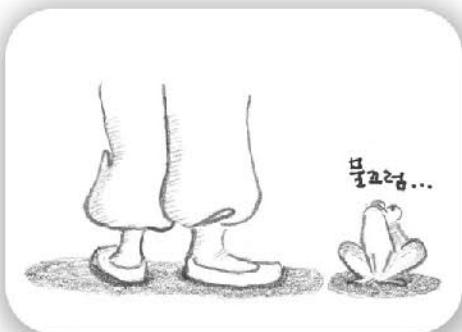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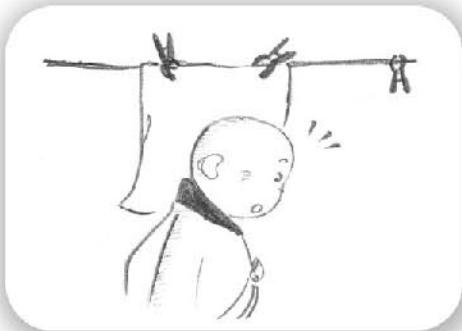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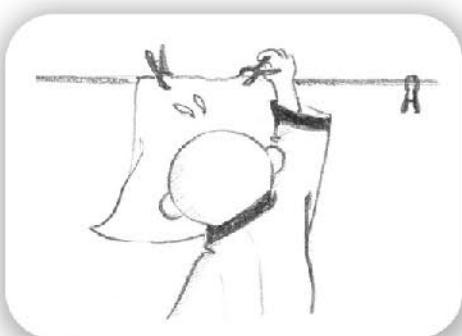
나는, 지금 당장 나의 면목은 어떠한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으나 그럴듯한 생각도 담도 나오지 않았다. 머리 깎은 승(僧)이라 하여 진면목(眞面目)보다는 수많은 말과 글 속에서 허덕이며 해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특성이 있기 마련인데 그 존재 자체만을 보고 그 특성을 이해하려 들고 해석하려 한다. 버리고 취함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결국 빈껍데기만을 붙잡고 알맹이는 흘려버리는 꽃이다.

집착 없는 무소유를 실천하신 법정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다. 비록 지금은 사바세계에 계시지 않지만, 자신의 글마저 버리라고 하셨던 스님의 참모습을 가슴에 새겨야겠다. 스님의 빛자취를 따라 나의 참모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본다. 지금 이 순간부터…….



# 소박한 밭원부터 큰 서우년까지

서 주/사교과



## 기와에 새긴 부처

- 와편전각가 여공 스님을 뵙고 -

회운 / 대교과

어느새 강원 4년 차 대방광불화엄경 반이다. 매 순간 경계에 걸리지 않고 수순하였는가?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었는가?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안이비설신의로 시작된 분별 망상에 마음은 하루도 고요하지 못하고 부유(浮游)하여 내려놓지 못한다. 어느 때에 바른 진리의 길에 도달할 것인가. 난감한 일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불교를 전하며 현실에 계획하는 문화전법 행자로서 '와편각(瓦片刻)'이라는 새로운 수행의 방편을 만들어 가는 스님이 있다. 나의 허술한 실립실이 가 화엄의 세계로 거듭나길 바라는 설렘과 기대로 문화전법 활동을 하고 계신 여공 스님을 찾아뵈려 나섰다. 스님은 중앙승기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06년 계간 〈불교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문학활동을 시작하셨다. 2009년에는 그동안 쓴 시를 모아 첫 번째 시집『잘 되었다』를 펴내시고 지금까지 서울 경인미술관과 불각사 미술관 등에서 여섯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스님께선 '와편각'이라는 낯선 예술 장르에 어떻게 인연이 닿았습니까?

"처음엔 서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소재나 방법, 기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하고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절 집안에 쓸모없이 깨져서 버려진 기와를 보게 되었지요. 기와는 부처님 머리꼭대기 전각지붕에서 부처님의 법향을 오

래도록 막아오던 것인데 그냥 버려진다는 것이 애석해서 기와에 새김질하면 의미가 남다르고 새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와를 주워 새기기 시작했죠. 「법구경」이나 「화엄경」을 보다가, 또는 조사스님들의 계송을 보다가 내가 평생을 품고 뭉쿨어도 좋을 구절들을 만나면 기와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장엄하다 보니 한 점 한 점 작품이 모여 전시회를 하게 되었죠. 그 후로 기와에 새김질 한다 해서 '와편전각가(瓦片篆刻家)'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소중한 것에 대해 무감각하며, 가치를 상실한 불감증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생명존중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었다. 깨어진 기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버려진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재창조하는 것으로써 기존 예술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스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스님께서는 「잘 되었다」라는 시집도 내셨는데 시는 언제부터 쓰셨는지요?

"시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틈틈이 썼지요. 출가할 때 다짐하기를 오직 부처님 공부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전혀 글 쓰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만 되면 글을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나는 '글을 쓰는 것이 숙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글을 쓰며 나를 정리하고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수행자답게 바르게 사는 것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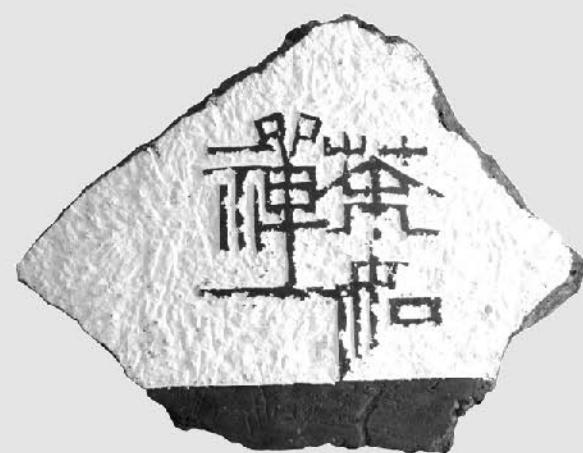


가 스스로 고민하다가 '글을 쓰고 와편각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문화포교사로서의 전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 법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것도 수행의 한 방편이란 생각에 시를 쓰고 와편각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매일 나를 돌아보고 관찰하고 명상하여 더욱 선(善)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수행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와 와편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하십니까?

"모든 예술장르, 이를테면 미술이나 음악에도 상징이 있고 온유나 비유가 있잖아요. 미술에는 시각언어가 있고 음악에는 또 음악 나름의 소리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학의 언어, 곧 문학은 언어라고 굳이 지칭할 것도 없이 곧바로 문학에 쓰이는 문자 자체가 언어이기 때문에 직접발언이 가능합니다. 음악과 미술이, 소리를 듣는 자와 작품을 보는 관람자의 사유를 통해 의미를 생산해낸다면, 문학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자기 발언이라 할 수 있는 직접적 울림을 가진 것이라 어떻게 전달할 것인





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던져주면 되는 일이죠. 읽고 안 읽고는 독자의 뜻이지 내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와편각은 고도로 청제된 불교 정서나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잘 살려 대중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반대중도 쉽게 이해하고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적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꼭 이런 것이어야 한다느니 저런 것이어야 한다느니 등의 어떤 관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작품을 보는 즉시 부처가 왔다 가버렸는데 부처가 어디 있지? 찾는다고 찾아질 일이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전시되었던 와편 작품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시는 스님의 모습을 통해 와편각에 대한 스님의 열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와편각을 하는 것이 내 공부이자 수행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하지요. 나는 평생 와편각을 할 겁니다. 내 작품을 내가 이 렇다저렇다 말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내 사후에 아무 개의 와편 작품은 이러저러했노라 하면 그뿐 아닙니까? 특히 내가 하고 싶은 작품들은 이런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조사 스님들, 예를 들어 경봉 스님이나 경허 스님 같은 큰 스님들의 어록이나 본보기가 될 만한 글귀를 모아 그 말씀들을 기와에 새겨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십 점이 됐든 삼십 점이 됐든 경허 스님과 관련된 말씀들을 모아 「경허집」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성철집」을 만들고, 「혜능집」을 만들어야겠다는 발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눈이 안 보일 때까지 어느 정도나 하고 갈지 모르지만 그리고 싶습니다.”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때가 다하면 자수화풍 사대로 흩어지지만, 법은 조사들의 어록이나 수행의 질서를 통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스님께선 와편각을 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이런 작품 활동을 위해 별도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첫째는 필법을 알아야 새김질을 할 수 있으니까 서예공부를 했지요. 어려서부터 혼자서 독학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서법 책을 사다 글씨를 연습했어요. 또 가장 한국적인 색을 알고 싶어서 천연염색을 공부했고 단청 물감도 공부했죠. 와편각을 할 때는 양각, 즉 돌을 새김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가는 선을 새겨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불화를 공부했습니다. 불화 배우기의 가장 기초가 불화초 그리기인데, 그 가는 필선을 그릴 때의 속도감이라든가 굵기, 입봉, 회봉, 멈춤 등을 와편에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중에 불화를 가르쳐 주시던 스님이 와편각 그만두고 불화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와편각이 좋았습니다. 전 각공부는 필수였고요. 모든 것을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할 뿐이었는데 기왓조각이라는 하나님의 소재를 다루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융용하기 시작했고 비로소 와편각에서 모든 것이 일체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서로 다른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와편각을 이루기 위해 각기 다른 방향의 산등성이를 넘어온 셈이었습니다.”

수행자에게는 누구나 자기의 근기에 맞는 수행이 있다. 싫어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한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분의 작품도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휘한, 오래 익어진 숙업이 발현된 것이라.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일은 무엇인지, 또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불교가 가진 향기를 작품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문화전범자로서 수행하며 사는 것이 보람이지요. 누구나 시를 쓸습니다. 다만, 얼마나 문학적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시를 쓰는 일도 그렇지만 와편각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기와라는 소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와라는 소재를 쓴다 하여 모두 불교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기와에 불경 구절을 새긴다 하여도 모두 불교적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표현하는데 꼭 예술적이어야 하느냐 아니냐를 따지면 불교는 다만 소재일 뿐이겠지요. 그러나 같은 불교라 하더라도 장엄함을 갖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차별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장엄함을 예술적 완성도로 본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작가 개인이 생각하는 완성도가 객관적 입장에서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기도 한 것이 문제인데 굳이 부처 종자를 들지 않더라도 내면에 익힌 습의 드러냄, 그

것이 가장 불교적인 소재와 의식으로 뭉쳐진 전법활동의 결과물이 아닐까 합니다. 또 어려운 점이라면 작품 제작비용과 전시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좀 힘들죠.”

간결한 답을 주셨지만, 작품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스님의 눈빛에서 깊은 애정과 그간의 고뇌를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불교예술이나 문화 활동을 하는 후학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학을 하거나 음악 하는 스님, 도자기 하는 스님, 특히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데 어떤 것이 됐건 어차피 할 것이라면 프로처럼 하라고 밀하고 싶습니다.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무기죠. 더구나 불법을 전하는데 있어서 문학이나 예술작품을 하는 것이 소일거리나 취미가 되어선 곤란하다고 봐요. 잘 노는 것과 소일거리는 분명히 다른 것 아닙니까? 프로라고 해서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프로처럼 해야 예술적 완성도도 갖게 됩니다. 예술적 환희 속에 장엄함이 있고 그 속에 부처가 들어앉아 있다면 더욱 환희심 나지 않을까요? 수행이든 문화 활동이든 깊이 있게 천착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관하여 인식이 깊어질수록 간혹 그릇된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불교 가치관으로 본다면 대중 예술은 외도이기도 하고 들뜸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시대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 대중의 근기에 맞는 포교를 하려는 방편으로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자신을 탐구하고 개성을 개발하는 능동적인 수행자로서 각각의 근기에 맞는 전법활동으로 포교하는 것이 자리이타이고 봇다의 가르침대로 사는 실천수행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 환계(還戒), 첫마음으로 돌아오는 길

이원규 / 시인

삼각산 화계사에서 처음 '환계(還戒)'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설날 아침 수경 스님께서 '오체 투지'의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며 하신 말씀이었지요.

10년이 넘도록 지리산에서의 시절인연으로 '삼보 일배,' '4대강 순례' 등 풍찬노숙의 숱한 일을 함께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날 처음 들은 '환계'란 말은 실로 두려웠고, 무서웠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담담하고도 차분한 말투로 "내가 속세에서 할 일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내 몸도 마음도 얼마 남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부처님께 계율마저 돌려주고 산중 촌로로 돌아가 배추농사를 짓겠다. 그때까지만 함께 하자."고 했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설마, 설마 했지요. 아주 라지옥 같은 저잣거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인 오체 투지를 하며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다잡기 위한 '신심의 발로' 정도로 생각했지요. 선방 수좌로만 살다가 저잣거리에 나온 뒤 처음으로 화계사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도 마치 행자승처럼 늘 그렇게 '옛 돌 위의 신발부터 똑바로 놓으라.'라는 조고각하의 첫 마음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지난 10년간의 순례는 사실 목숨을 건 고행이

였습니다. 지리산 실상사 산문을 나와 낙동강과 지리산 도보순례, 부안에서 서울까지의 삼보 일배, 1년간 1만 리 길을 걸은 탁발순례, 4대강 103일 도보순례, 하악단인 지리산 노고단에서 시작해 중악단인 계룡산 신원사를 지나 상악단인 북한 묘향산을 향해 마치 한 마리 자별레처럼 기어가다 38선에 막혀 임진각에서 멈춘 오체투지, 그리고 환경파괴의 현장에 세운 부안의 해창사와 북한산의 철마 선원과 남한강의 여강 선원. 그동안 무릎관절은 다 문드려지고 안 좋은 눈은 더욱 나빠지는 등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말 그대로 "세상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는 당대의 유마 거사이자 환경 보살이였습니다.

그런 수경 스님께서 흘연히 떠났습니다. 못 생명의 요람인 4대강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하던 스님께서 낙동강변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을 접하고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면 수경 스님께서 가야 할 길을 문수 스님이 먼저 갔다는 자괴감에 빠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다 받아들이겠다."라며 솔직 대범한 발로 참회의 글을 남기고는 사라지셨습니다. "생사 해탈의 관문을 넘어서지 못한 채 얘기하는 것은 자기 위선"이라며 "죽음이 두렵다." 대접받는 것도

싫다."라는 스님의 처절한 고백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는지요. 다만, 그 어디에서나 한결같던 스님의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의 자세 만은 잊지 못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함께한 풍찬노숙의 지난 세월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천막생활의 순례 중에도 이른 새벽에 먼저 일어나 주변 공중화장실의 누런 소변기와 대변기를 남몰래 맨손으로 깨끗이 닦아내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은 한 달에 한 번도 잘 씻지 않던 스님이 그립습니다. 1주일 동안 뺨지 않은 양말을 햇볕에 말려가며 신다 보니 던지면 꽂꽂하게 썰 지경이 되어도 "스님, 더러워 죽겠어요. 제발 좀 씻으세요." 편장을 주면 "야, 향 쓴 종이에 향기나듯이 내 몸에는 향기가 나, 맙아봐." 하며 허허 농담으로 받아넘기던 스님이 더더욱 그립습니다.

행여나 하고 스님의 향기를 찾아 모터사이클을 타고 전국의 여기저기 오지마을 토굴들을 둘러보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디선가 겨울옷 한 벌과 간강 된장을 챙겨갔다는 풍문만 들었을 뿐 스님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다시 첫 마음으로 귀의하신 스님을 더는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오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스님을 기다리며 즐시 '환계'를 사족으로 내보입니다.

### 벼락처럼

천길 벼랑의 폭포수처럼

한번 넘어오면 천새는 뒤돌아보지 않는 법

### 다시 길을 떠나며

어느 따뜻한 겨울, 바위 옆에서 풀다 죽고 싶다

### 이미 오래전부터

산중 촌로로 돌아가 배추농사를 짓고 살다니  
환갑 넘어 기어코 환바라니  
마을에서 출가로 다시 출가로  
운수남지의 길이 처음처럼 늘 그려했듯이  
출처어묵(出處語默)의 행행한 날들이여!

칠팔십 훨머니 보살들에게 철 받는 게 부끄러워  
이제 그만 대접 받는 중노릇이 싫어  
승려를 반납하고 어색했던 주지 소임도 내려놓고  
삼각산 화계사 부처님 두 손에  
저잣거리의 허령파  
기사장삼마자 훔훔 벚어 되돌려주었으니

운산철벽(銀山鐵壁) 단숨에 박살이 나고  
증다운 증으로 부문관(無門關)을 넘나드니  
환계아말로 진정한 입산 출가 아닌가

### 삼보 일배로

이미 다 많은 무를 연골은  
걸쭉질듯 운몸 베껴 거리면서 빛나는 사리요  
오체투지로 더욱 침침해진 두 눈이 아말로  
마침내 살아 청청 진실사리가 아닌가

### 스님, 수경 스님

대체 어디쯤에서 흘로 여여하신지요  
생사의 한 생劫은 이미 다 이루어지고  
모두 맨발로 기다리고 있으니  
훨훨 놀고 돌아 강변의 철새 도래지로 오시고  
있는지요 ☺

이원규(李元圭)님은 1962년 경북 문경 출생. 84년『월간문학』, 89년『실천문학』으로 등단 하였고 시집『강물도 목이 마르다』,『옛 애인의 집』,『돌아보면 그가 있다』,『빨치산 편지』등이 있으며 산문집『지리산 편지』,『길을 지우며 길을 걷다』 등을 출간하였습니다. 신동엽창작상과 평화인권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순천대 문창과, 지리산학교, 실상사 작은학교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 초심자의 향심

영조 / 사미나파

무더위를 식혀주기라도 하듯 시원스럽게 훌러내려 가는 이목소의 물줄기를 보고 있노라면 더위에  
지쳐 생긴 마음의 산란함이나 망상들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 사라지게 된다. 그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자니 마음 한 곳에서 예전에 있었던 추억이 샘솟기 시작한다.

계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사찰에 혼자 있게 된 나는 내가 주인이라는 자명감에 집안 곳  
곳을 돌아다니며 소제를 하고 있었다. 말끔히 뉘인 법당을 쳐다보며 ‘음, 깨끗하군.’하고 자아도취에 빠  
져 있을 때 나의 눈에 띠는 것이 있었다. 바로 부처님의 어깨와 무릎에 자리를 잡은 하얀 먼지였다. 기도  
할 때마다 ‘저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달은 것이다.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상복 결례를 깨끗이 뺏아 법상에 올라갔다. 단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처님을 먼지  
의 안식처로 만들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낑낑거리며 법상에 올라가 부처님의 옆에 섰을 때 부처님의 어깨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상호  
에 있는 먼지였다. “그래, 오늘 날을 잡자!!” 나는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린다는 명목으로 물에 적신 걸레  
로 조심스레 덮기 시작했다. 우리가 셋을 때 얼굴을 먼저 씻는 것과 같이 부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을 좋  
아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미부터 덮어 내리기 시작했다. 이마, 코, 광대뼈……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  
다.

그런 가운데 사건은 입술에서 시작되었다. 부처님의 입술을 뒤는 순간 꽃 립스틱을 만진 것처럼 걸  
레에 붉은색이 묻어났다. 순간 손놀림을 망설였지만 이내 “색깔이니 조금 묻을 수도 있겠지.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덮었다. 이번엔 입술의 붉은색이 옆으로 번졌다. 꽃 립스틱을  
바르고 손등으로 문지를 것 같았다. ‘이걸 어쩌지…?’라는 생각과 함께 우선 번진 붉은색을 닦고 더는  
상호를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상호에 이어 어깨와 무릎의 먼지를 제거하고 나서 나는 부처님이 더 반짝반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을 했다. 그래서 창고를 정리하다 발견한 왁스로 광을 내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  
다. 앉아계신 좌대부터 뾰드득 소리가 나도록 열심히 닦았다. 그렇게 문지르기 시작한 지 5초도 되지 않  
아 나의 손과 눈은 경직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금빛이었던 좌대의 색깔이 하얗게 벗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닐 거야, 이게 원래 이랬을 거야.’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다시 문질렀다. ‘…….’ 원래란 것은 없  
었다. 부처님 좌대에 있어야 할 금빛이 결례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주르륵 흘렀다. ‘나는 단지 부처님을 깨끗이 씻겨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건만. 부처님이시여, 저에  
게 어찌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한참을 멍하니 부처님을 바라보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다. 출타하  
셨던 사형님이 혼자 사찰에 있을 사제가 걱정되어 전화하신 것이다. 통화를 하다 법당의 부처님을 목욕  
시켜 드리고 있다는 말에 사형님은 깜짝 놀라셨다. 돌아오는 시간을 최단으로 줄이고 법당에 들어와 부  
처님을 보신 사형님의 얼굴은 그야말로 창백함 그 자체였다. 이제 큰일 났다면 고개를 떨어뜨린 나에게  
사형님은, “부처님이 훤히지셨네. 부처님을 깨끗이 해 드리고 싶은 네 마음이 느껴져. 부처님도 시원하  
다 하시겠어. 그래도 다음부터는 나에게 말하고 나서 행동하도록 해라.”라며 웃어 보이셨다. 눈물이 쏙  
빠지게 걱정을 둘을 줄 알았던 나는 사형님의 말에 어리둥절했다. 당시에는 사형님이 왜 걱정하지 않고  
웃었는지 많이 궁금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절집의 생활이 익어가는 지금은 사형님이 보여주셨던 웃음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부처님을 깨끗이 해 드리겠다는 나의 한마음, 존경하는 분을 향한 순수한 초  
심자의 향심을 그때 사형님은 보신 것이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사형님은 부처님을 다시 반짝  
반짝 빛이 나는 새 옷으로 갈아 입혀 드렸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때의 순수하고 맑  
은 초심자의 향심을 나는 지금 운문사의 도  
량과 대중, 자연을 보면서 다시 배우고 있  
다. 그때만큼 순수한 일편단심의 마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도록 지금 있는 이 자  
리에서 나를 돌아보고자 노력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간다.

연꽃의 향이 소리 없이 허공에 묻히듯  
나의 향심이 무르익어 스스로 피어오를  
때 나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말할 것  
이다.

“부처님, 시원하게 목욕 하실  
래요?”



## 내 마음의 밭

능현 / 사집파



대지의 열기와 하늘의 찌르는 듯한 햇빛을 온몸에 가득 담은 이 여름날에도 우리는 토시와 장갑, 강화와 호미로 중무장하고 밭으로 향한다. 마음이야 시원한 물가에 밭 담그며 수박 한 입 베어 물고 싶지만, 그런 마음마저 놓아버리고 저 푸른 밭, 마음 밭으로 향한다.

지난 봄철, 아직 일구어지지 않은 드넓은 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힘 하나는 우리 반이 죄고 야!”라고 씩씩하게 외치며, 무려 1,000포대의 거름을 밭에 뿌리고 섞는 일을 시작으로 드디어 우리만의 원

두일지가 시작되었다. 모두 농사일이 처음이라 좌충우돌 해매는 일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둘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곡괭이로 땅을 일구어 기나긴 밭고랑을 만들었다. 두 사람이 짹을 지어 밭고랑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비닐을 잡고 뛰었다. 넓디넓은 밭에 비닐을 다 씌우고 나니 혼자였다면 하기 어려운 일을 모두의 힘으로 거뜬히 해냈다는 뿌듯함이 생겨났다. 도반의 땀 맷한 얼굴을 바라보노라니 서로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부모는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름을 잊는다고 했던가!

조그마한 씨앗을 하나씩 모종판에 꼭꼭 눌러 심으면서 ‘잘 자라다오.’라고 마음을 건넨다. 부모가 된 심정으로 물을 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모종판을 들여다보았다. 어느 순간, 연두색 귀여운 새싹이 퇴위진 모습에 우리 반 스님들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사집이 되었음을 새삼 실감 나게 하는 상봉의 시간이었다.

씨앗이 모종이 되어 밭에 처음 심어지던 날.

마음속으로 다리니를 외우며 밭고랑 한 줄씩 각각의 모종을 심었다. 자기가 모종을 심은 밭고랑 맨 앞 팻말에 각자의 이름을 적었다. 그렇게 우리는 상추, 쑥갓, 균대, 아욱 등의 엄마가 되었다. 서로 자기 이름이 적힌 채소가 더 잘 자란다고, 더 맛있을 거라고 우겼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푸성귀를 바라볼 때면 피로도 더위도 어느덧 저만치 달아나곤 했다.

처음 수확하던 날. 때 빼고 광내서 예쁘게 친상에 올라온 채소는 대중 스님의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맛있다며 크~게 쌈 하나 싸서 입에 넣는 스님들 모습에 힘들게만 느껴졌던 농사일이 점점 즐거워졌다.

요 며칠 계속되는 강렬한 햇빛에 힘을 잃은 푸성귀에 물을 주며 문득 지난날의 내 모습을 회상해 본다. ‘신심’ 하나로 발심하여 익숙하지 않은 절집 살림 배우랴, 입에서 걸도는 염불 외우랴… 허둥대던 행자 시절은 마치 모종판에서 씹을 틔우기 위해 힘들게 씨름하는 씨앗과도 같았다. 어른 스님께 들었던 경책은 바람이 되고, 물이 되고, 양분되어 저 푸른 밭의 잘 자란 채소처럼 나를 운문사 대중 속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

부처님께서는 『잡야함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마음은 나의 밭이요, 밀음은 나의 씨앗이다. 치혜는 나의 모습이며,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악업을 없애는 것이 내가 뽑는 잡초다. 이런 일을 하는데 게으르지 않은 것이 나의 소다. 나는 이처럼 밭을 잘고 씨를 뿌려서 감로의 결실을 수확한다. 이것이 나의 농사이니라.”

사집이 되어서야 살아 있는 대지의 숨결을 느끼며 소통하는 법을 알았다. 날마다 자라나는 푸른 밭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내 마음 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리라. 인내와 하심을 거름 삼아 번뇌와 악상의 잡초를 제거하고, 身·口·意 삼업을 잘 닦으리라. 이렇게 꾸준히 정진함으로써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가 되도록 노력하리라.

나를 보는 모든 이들도 신심과 보리심이라는 감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발원하며, 내 마음 밭을 잘 가꾸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

## 나의 좌우명

반주 / 사교과



식차마나니계를 받으러 가서 갈마를 받던 때였다. 갈마사스님께서 좌우명이 뭐냐고 물으셨다. 긴장하고 있던 나는 순간 열렬 결에 늘 입에 달고 다니던 서장의 한 구절을 큰소리로 읊었다. “生處는 放敎熟하고 熟處는 放敎生이어다.” 갈마사스님께선 서장의 글귀가 좌우명이냐고 하시며 크게 웃으셨고 듣고 있던 대중까지 합세 하여 주위가 일순간 웃음바다가 되었다. 엉뚱하게 서장의 글귀로 좌우명을 삼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대답하는 내 모양새가 우스웠던 건지 까닭을 알지 못했던 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평생에 수행의 지침이 될, 나의 좌우명을 갖게 되었다.

강원에 들어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그동안 내가 너무 엉망으로 살았었구나!’라는 것이었다. 행간 때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리정돈 습관이나 일의 순서를 몰라 실수를 연발하여 항상 뒤처지기 다반사였다. 강원생활, 대중생활에 대한 기본습의가 부족했다. 위로는 보리를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뜻을 품고 위대한 출가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나 또한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그러질 못했다. 도움은 고사하고 일분일초를 다투는 강원의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 속에서 느린 나를 대신해 주는 누군가가 생겨났다. 빨래를 널어주고 소지품에 이름도 새겨 주고 훌린 물건도 챙겨주고… 늘 도움받는 처지에 놓이고 보니 대중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 한 몸 추스르고 자기 할 일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임이 빼저리게 느껴졌다. 그러나 묘한 것은, 주어지는 소임이나 가벼운 일조차 내가 원하지 않거나 피하고 싶을 만큼 익숙하지 않은 것들만 찾아왔다. 어린이 포교를 하는 교화

부 일이나 후원에서의 여러 가지 일 등 새로운 소임이 주어질 때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왜 이렇게 못 하는가?’를 고민하며 강원생활의 고비를 넘고 있던 어느 날, 나는 지금의 좌우명이 된 이 글귀를 만나게 되었다.

**生處는 放敎熟하고 熟處는 放敎生이어다.  
(설은 것은 익게 하고 익은 것은 설게 하라.)**

대혜스님께서 서장에서 말씀하신 뜻은 ‘다겹 생 윤회를 거듭하면서 무명에 덮인 우리에게 설은 것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길이고 우리가 익혀온 것은 깨달음을 등진 오욕락의 길이니 낯선 수행은 친근히 하여 익히고 몸에 익은 오욕락과 나쁜 습관은 멀리하여 낯설도록 하라.’라는 것이다. 폭류와도 같은 강원의 일상 속에서 헐떡이며 갈팡질팡 하던 내게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동안 내가 다른 도반 스님들보다 유독 강원생활을 힘겨워했던 이유가 확연히 이해되고 생각이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것은 과거에 이미 선근을 익혀온 도반 스님들과는 달리 이제 시작하는 내게는 해본 적이 없는 설은 것들인지 모른다. 그러나 힘든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켜 보니 그것은, 늘 추상적인 진리와 이상에만 매달려 학창 시절엔 책만을, 출가해선 참선이나 기도만을 일삼으며 아주 기본적인 생활습관조차 익히려 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치우친 가치관과 편벽된 삶의 결과물이자 업보였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일상의 모든 것이 수행 아닌 것이 없으며, 또 理와 事가 둘이 아닌 원융한 것이라고 누차 배웠어도 절대로 행 따로였던 나의 삶은 극단을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나 자신을 크게 반성하면서 지금부터라도 편향된 삶의 방식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일상에서 구멍 난 내 자리를 하나하나 성실하게 메우는 것이며, 바로 ‘설은 것을 익게 하는 것’이었다.

강원생활 3년째, 사교반인 지금도 아직은 대

중생활이 낯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제는 크게 두렵거나 잘못한다는 자체으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긍정하는 변화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설은 것은 익어지기 마련이란 걸 알기 때문이다.

어쩌면 ‘설은 것을 부단히 노력해서 익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수행의 처음과 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실 익은 것은 자신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항상 설은 것이 경계가 된다. 낯설어서 어렵고 괴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내게는 취약한 부분이기에 더욱 극복하려고 애써야 한다. 설은 것을 익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 탓하는 마음, 주저앉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등 갖가지 마음과 대면한다. 때로는 나 자신의 무의식 조차… 그리고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지 않으면 변화가 어렵다는 걸 알았다. 부단히 노력하여 어떤 한 가지가 내 몸에 익어지고 그 결과 사소한 습관 하나가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나아가 업도 바꿀 수 있다. 바꾸어내는 이것이야말로 정진의 힘이며 반야의 밑거름이다. 이런 일상 속에서 허망한 마음을 버리려는 애씀 없이 어찌 마음의 공한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또 일상을 성실히 메워가는 노력과 단련 없이 어떻게 정진의 힘을 얻을 것인가! 마음을 내리고 바른 습관을 익히고 업을 바꾸는 자기극복 없이, 마침내는 뒤를 것도 익힐 것도 없이 나 그대로가 본래 부처라는 그 자리를 어찌 만날 수 있겠는가! 스스로 반문해 본다. 그리고 거듭 다짐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소임과 작은 일들 모두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성실하게 익혀 수행의 두레박 그끈을 절대 놓치지 말자.”라고 말이다. ●

## 자연도 행복이 필요합니다

편집부

무더운 여름을 상쾌하게 식히기 위해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사람들은 자연을 찾아 떠난다. 이렇듯 자연을 이루는 소중한 생명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도반이다. 인간은 자연 밖의 존재가 아닌 그 일부이며, 자연에 의해 탄생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누구나 따뜻한 어머니의 품속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요즘의 자연은 옛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사업, ○○개발, 최신과학기술, 고속도로, 컴퓨터, 휴대전화, 자동판매기, 전자동 가전제품과 목욕시설 등등. 현대사회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편리함은 우리에게 자연보다 더욱 친숙해 있다. 편리함을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따라야 하는데도 사람들은 별로 불만이 없는 듯하다. 편리한 것이 반드시 즐거운 것만은 아닌데, 다른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망각하며 살고 있다. 그 결과 자연의 동·식물의 멸종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으며 엘니뇨, 라니냐 등의 기상이변 현상도 빈발한다. 또한, 겨울 날씨가 따뜻해지고 기습 호우가 퍼붓는다. 세계 곳곳에서는 홍수피해와 연관하여 농산물 수확량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식량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공기와 물의 오염으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상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한다. 산업사회의 성장과 개발 때문에 유해물질로 오염된 토양은 이미 우리 삶의 터전이 아니다. 이렇게 병들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첫 번째, 연기법을 우리의 세계관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다.’라는 존재의 상호연관성이 모든 것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살면 나도 산다. 네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고,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라는 연기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꽃이 모여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추구해야 한다.

두 번째, 살아 있는 생명에 대한 불살생을 근본으로 하는 보살의 대자비심을 삶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보살은 불법(佛法)을 배우고 펼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존재이다. 나아가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살리기 위한 대원력을 세우신다. 그것은 인간과 세계를 향한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의 발휘를 존재 이유로 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세 번째,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며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물론 산·강·나무·풀 등에도 불

성(佛性)이 내재하여 있다는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불교 전籍(典籍)에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의 관점에서 전개된 생태적 교설들이 있다.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진실한 본체이다. 그러므로 항상 방생하고 세세생생 생명을 받아 항상 머무르는 법으로 다른 사람도 방생하게 해야 한다. 만일 세상 사람이 축생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마땅히 방편을 세워 구호해 괴로움을 풀어 주어야 한다.

『법망경』

『법구 비유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자기와 인연이 맞아서 자기에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 된다.

이러한 사유는 연기와 무이에 입각한다.

자연도 또한 그러하다. 자연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유를 원하는 생명체이다.

수행자들은 이러한 연기와 자비의 생태학적 정신을 바탕으로 정진하고 있다. 매일의 밭우 공양은 물을 비롯한 음식의 귀중함을 일깨워 주고,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사찰의 재래식 화장실인 해우소는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하고 분뇨를 퇴비화하는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이다.

불교의 지혜와 전통은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삶의 원칙과 실천 윤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천이다. 우리 불자들은 모든 존재가 직면한 생태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녹색불교(Green Buddhism)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녹색불교는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이기심과 끝없는 욕망의 구조에 대한 깊은 참회와 성찰로부터 시작된다. 이와 같은 에너지를 자연에 대한 자비원력으로 승화시켜 세상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제는 자연도 자유로움과 행복을 원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에 자비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발원해 본다.

생명의 근원에 귀의합니다.

자연의 본성에 귀의합니다.

온 생명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



▲ 블 매기 대중 울력



▲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 승가대학 어린이포교 교육 특강



▲ 감자 캐기 대중 울력



▲ 설우 스님 '육조단경' 특강

## 운·문·소·식

- 6월 1일 여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5일 '원정차 연구회' 주최로 오방 화채를 전시한 '궁중 화채 놀이' 가 만세루에서 있었습니다.
- 6월 7일 도량과 고추밭 풀 매기 대중 울력을 했습니다.
- 6월 16일 ~ 17일 단오날을 맞아 대중 스님들이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6월 19일 행자 외전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희성당 재건축 공사로 말미암아 컴퓨터 등의 외전 수업은 임시 휴강입니다.)
- 6월 19일 ~ 20일 제49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가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태양 같은 미소로'라는 주제로 열려 교회부 스님 32명이 다녀왔습니다.
- 6월 24일 학인 스님들의 여름철 첫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사단법인 동련' 주최로 '승가대학 어린이포교 교육'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7월 2일 갑자 캐기 대중 울력을 했으며, 여름철 첫 自恋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3일 ~ 5일 법인정사 선원장 설우 큰스님의 '육조단경'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7월 9일 여름철 결계포살이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7월 15일 화엄반 스님 10명이 경주 동대 병원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매달 1번)을 다녀왔습니다.
- 7월 23일 학인 스님들의 여름철 두 번째 차례법문을 청풍료에서 합니다.
- 7월 30일 ~ 8월 1일 '해처럼 밝고 별처럼 빛나는 우리의 발원'이라는 주제로 제32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열립니다.
- 8월 2일 여름철 두 번째 自恋와 여름방학공사를 청풍료에서 합니다.
- 8월 3일 34일간 여름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도와주신 분

- |          |          |          |          |
|----------|----------|----------|----------|
| · 일봉스님   | · 여공스님   | · 황수진불자님 | · 혜옹불자님  |
| · 조학제불자님 | · 이월례불자님 | · 최옥립불자님 | · 이기태불자님 |
| · 김창배불자님 | · 조영자불자님 | · 서병수불자님 | · 김천수불자님 |
| · 정연식불자님 | · 최동인불자님 | · 우충식불자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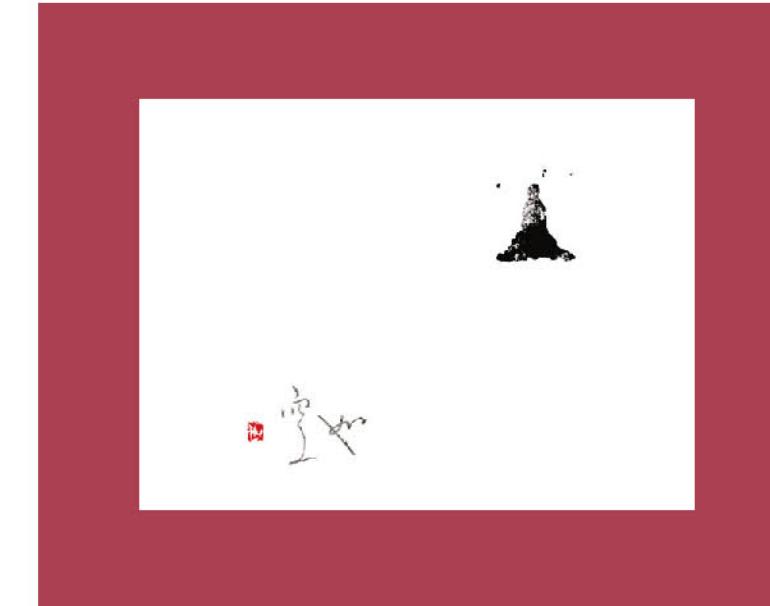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2-8834(FAX 겸용)

## | 등 불 |



여공 스님 / '내 마음속 부처' 와편 전각 탁본

마음으로 열어야 한다

귀로 듣고 얻은 것은 눈으로 직접 보고 얻은 것보다 넓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얻은 것은 마음으로 깨달아 얻은 것보다 넓지 못하다.

마음으로 임음을 삼고, 눈으로 신하를 삼고, 귀로 관리를 삼는 것은 옳다 하겠으나,

눈으로서 마음으로 얻은 것을 대신하는 것은 못난 짓이요,

귀로서 눈으로 얻은 것을 대신하는 것은 더욱 못난 짓이다.

- 죽창수필 中에서 -



## 雲門僧伽大學

714-883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월리 1789번지 雲門寺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hsa.or.kr>

[운문·계간] 어름호·통권 제113호·2010년 7월 21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발행처·운문승기대학/발행인·명성(전임호) / 고문·일진 / 편집·운문승기대학 문화부  
편집장·현산 / 편집위원·장주, 선준, 도경, 민석, 서진, 임선, 의영, 진서, 덕재, 도율 / 사진·증호 / 삼화·도일, 선유  
컴퓨터·선준 / 편집디자인·▲미디어 (02)2285-3366

